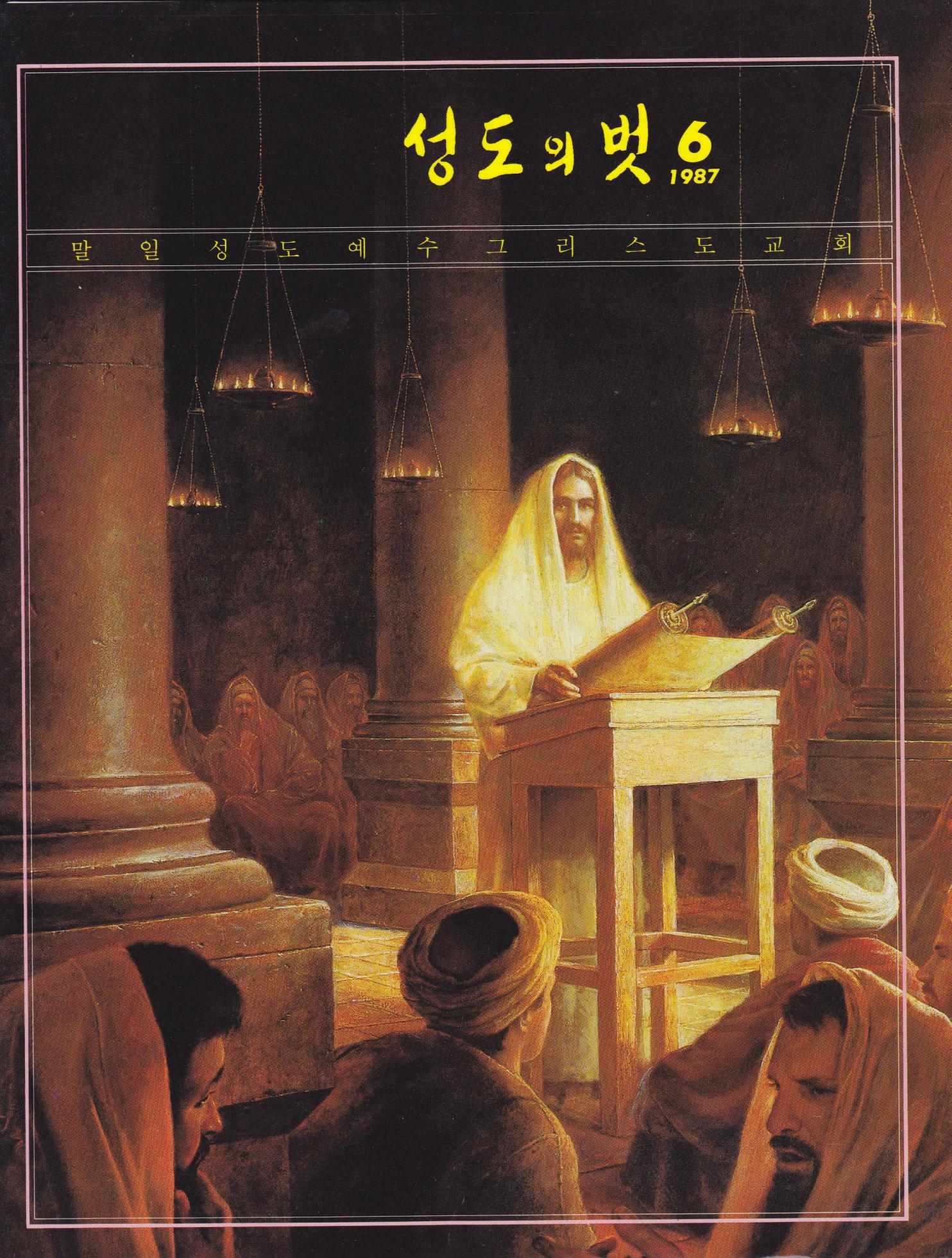


성도의 빛 6

1987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성도의 빛

1987년 6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앤사인, 뉴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즈 엠 페러모어, 테릭 에이 커스버트.

통 권 : 제254권, 제23권, 제 6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0584KO
 PRINTED IN KOREA 6/87
 © 198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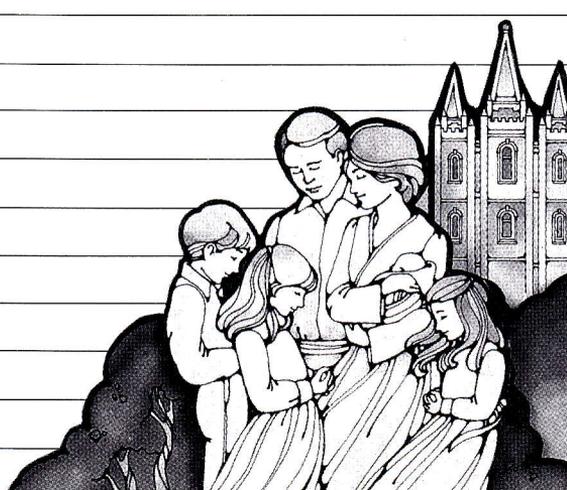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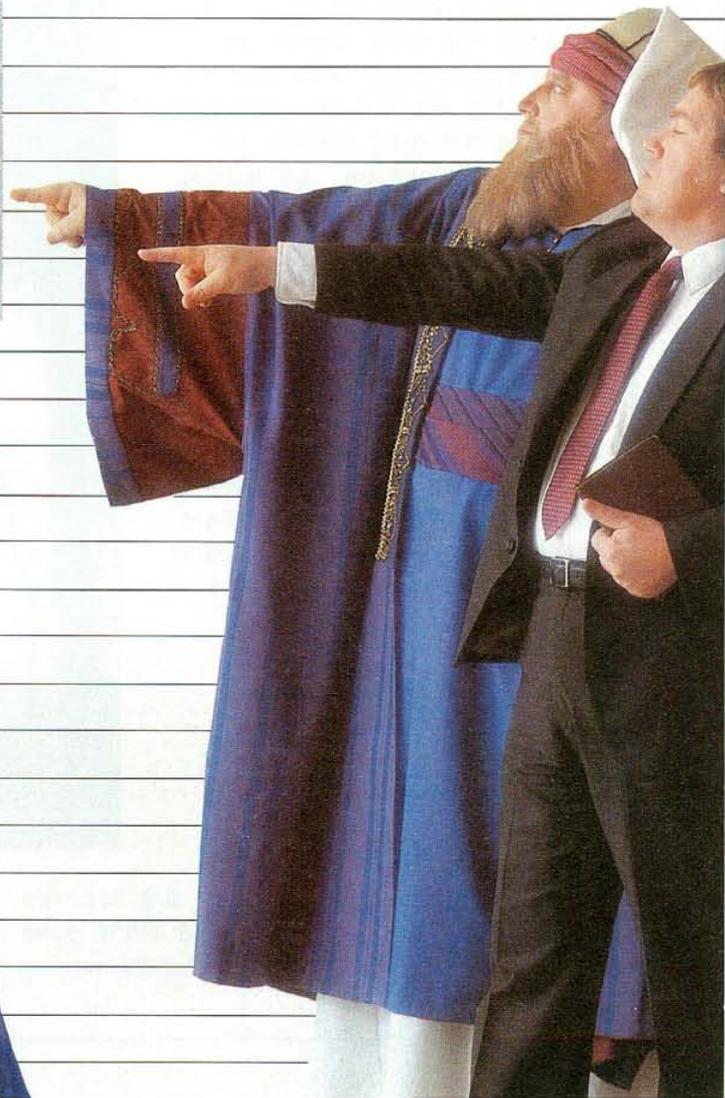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란
2 대관장단 메시지 :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	42 보이지 않는 것 돈 린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45 아론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5 방문 교육 메시지 : 복지의 기초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의 빛 어린이란	
6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죄수와 수상의 친구	2 후 비샤의 거위 빅키 브럼
브렉 잉글랜드	
12 산티아고로의 여행	5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줄리 와델
마리 디아즈 마르티네즈	
14 플로라 아뮤센 벤슨 : 예언자의 내조자, 주님의 여중	6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 팻 그레이엄
디린 헤드 로드리게즈	
	8 점선 잇고 색칠하기 로버터 엘 패어럴 교회 및 지역 소식
20 우리 마음속의 소망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25 없어진 책	
안나 마그리테 크로 톱슨	
27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 결혼의 애정 생활에 대한 소고	
브렌트 에이 바알로우	
35 지역 봉사 :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젠 언드우드 핀보로우	





대관장단 메시지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받게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간증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지니고 갈 수 있는 몇 안되는 소유물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것을 성신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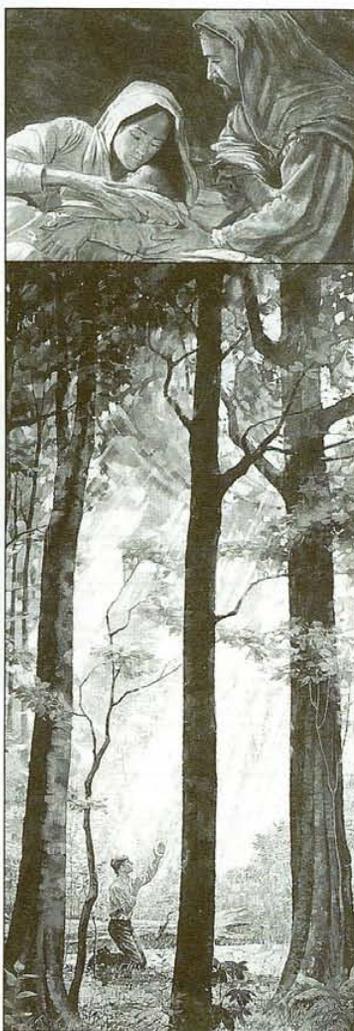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그가 약속된 메시아였으며, 그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동안 많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그의 교리로 설명하신 율법이 참되다는 것을 알며 그러한 율법과 의식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스스로 원하여 갯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뿔에 지시고, 육과 영으로 고통을 받으시며 모든 땀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어 우리가 회개할 경우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교성 19:16, 18 참조)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실제로 부활된 육신을 가지고 무덤에서 당당히 일어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사셨으므로 모든 인류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주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이 온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세우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절정의 때에 세우신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 회복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닌 간증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과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계승한 분들의 예언적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38)고 말씀하신 연고입니다.

해의 영광의 축복을 최후로 받게 될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여 그의 이름을 믿고, 그가 매장된 방법으로 물로 매장되어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교성 76:51)

이들은 주께서 “신앙으로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부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신으로 인봉된 자”(교성 76:53)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들입니다.

“의롭고 참된 자!”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들에게 얼마나 합당한 표현입니까! 그들은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데 용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받은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교성 84 : 33 참조),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며, 말과 행실로 교회 지도자들을 받들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회원들입니다.

이러한 회원들에게 주님은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왕권과 통치권과 주권과 권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참고 견디어 낸 모든 자를 장식하리라.”(교성 121 : 29)

간증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말일의 과업이 참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와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하여, 승영을 잃는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영화로운 과업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 과업에 항상 담대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나의 보좌되시는 분들과 십이사도의 형제님들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와 관리 감독단의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영감받은 권고의 말씀을 지지하며,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는 바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이 합심하여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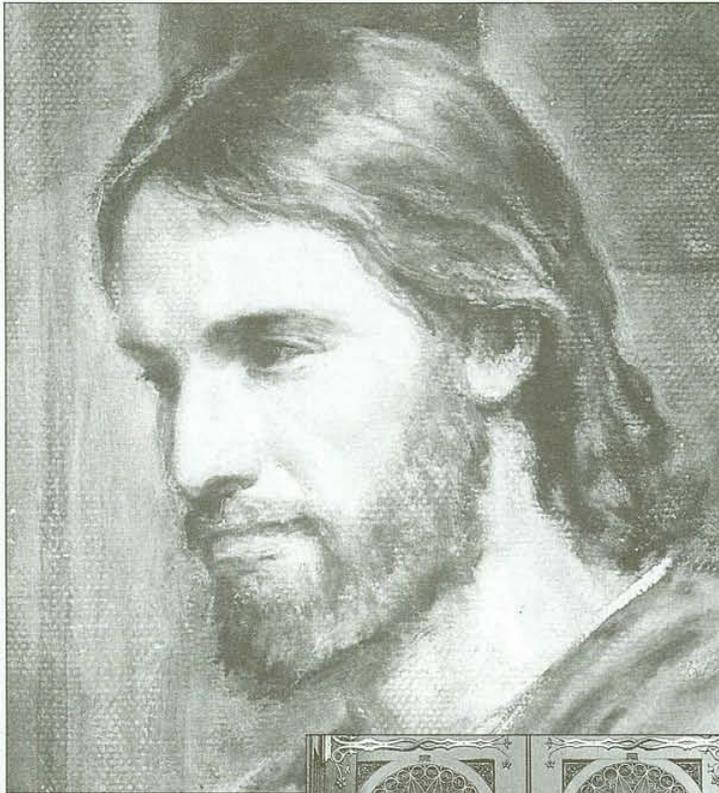
나는 교회 회원되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인식하기를 바라며, 우리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주님은 우리 각자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담대하며, 참되고 충성되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력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찬송가, 146장)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교회를 관리하시며 그의 종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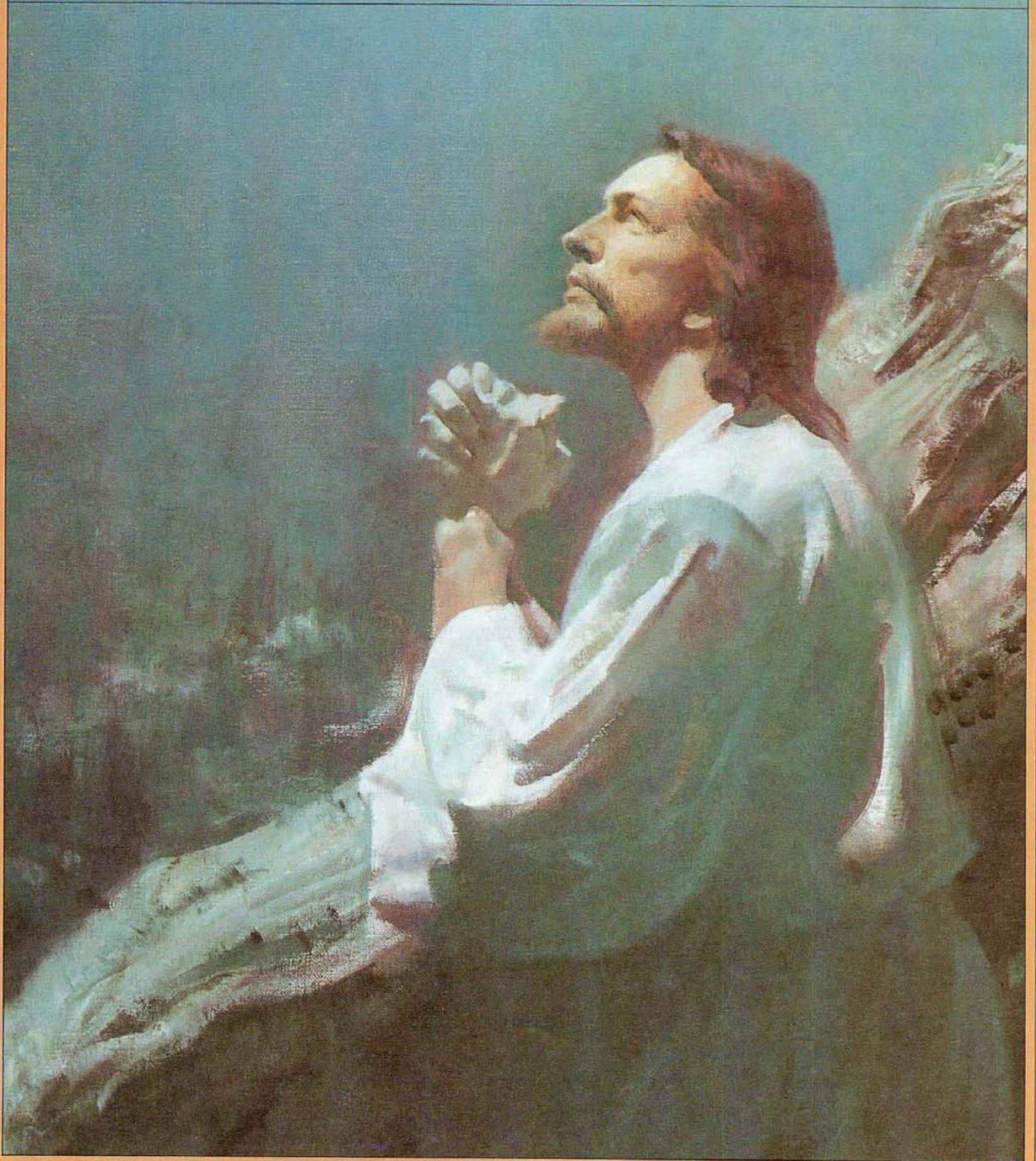


델 파손작 구세주 그림

예

주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스스로
원하여 겹세마네 돌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불에 지시고,
육과 영으로 고통을 받으시며 모든 말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어
우리가 회개할 경우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에드와 에프트 벨슨 내레이션



복지의 기초

목적 : 사랑이 복지 사업의 기초임을 이해한다.

복지 사업은 사랑의 실천이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 즉 넓은 의미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난한 자에게, 실의에 빠진 자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지 사업의 중심이 된다. 우리는 물문경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고 있다.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민에게 친질하며, 너희 재물을 값없이 나누어 저들도 너희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너희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펴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 : 17~19)

사랑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는 주는 자나 받는 자에게 다같이 유익을 돌려 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라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말씀하셨다. “베풀어 주는 과정은 가난한 자를 들어올려 주고 부자는 겸손하게 합니다. ... 양쪽이 다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와

계약에서 풀려 난 가난한 사람은 세속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온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자는 남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베풀어 주는 영원한 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인간이 일단 온전히 자립하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며, 그러한 과정은 되풀이되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4년 11월호, 6페이지)

어느 젊은 부부가 마을이 홍수에 잠기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가재 도구를 모두 다 잃었다. 자린 봉사자들이 나서서 그들의 집에서 흙을 파 내고 돌을 끄집어 냈다. 음식과 의복과 당장 거처할 곳도 마련되었다. 상호부조회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가재 도구도 다시 들여놓아 주었다. 이러한 봉사로 인해서, 도와 준 사람들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유대가 생겨 나게 되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서로를 받들고 도와 준다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의 하나가 실현되었음을 느꼈다. 그 젊은 부부는 이처럼 사랑과 마음으로부터의 도움이 아낌없이 주어지는 것에 크게 감동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속의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복지 사업은 심오한 영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청지기의 직분을 성취해 나갈 때, 사랑과 간증이 더욱 커지게 된다. 주님은 이것을 교리와 성약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교성 29 : 34)

“외견상 모든 행동은 물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말씀하셨다. “과일 및 야채 통조림, 식품 저장... 이러한 모든 행위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영성의 요소입니다.”

그런 다음 맥케이 대관장은 복지 사업에 대한 영적인 발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영적인 본질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영혼, 즉 인간에게 있는 신성한 영이 획득하는 지고한 것입니다. ... 역경은... 하나님과 영적인 깨우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결핍은 우리가 마음과 영의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기만 하다면 힘의 근원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복지 사업의 원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받은 일상 생활의 경험에 대하여 말한다.
2. 복지 사업의 개념을 가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3. 복지 사업의 영적인 본질에 관한 느낌을 표현한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최수와 수상의 친구

브렉 잉글랜드

역

사상 처음으로 1984년 1월 7일에 중화인민 공화국의 수상이 미 합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가 탄 헬리콥터가 하와이 라이에의 작은 마을의 공중을 나를 때, 수백 명의 외교관과 기자들과 장교들과 통역사들이 브리감 영 대학 하와이 캠퍼스의 종려 나무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키가 큰 백발의 신사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아왔다. 그는 미 합중국 대통령 대신으로 조 자양 수상을 영접하도록 파견된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였다.

애쉬튼 장로에게 있어서는, 중국의 수상을 영접하는 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기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쉬튼 장로가 회상하는 말이다. “나는 그가 품위있고, 파스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해주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호놀룰루에 있는 로얄 홀에서 수상을 위한 성대한 만찬이 베풀어졌다. 애쉬튼 부처가 귀빈들이 줄지어 선 세번째 열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본 수상은 앞 줄에서 떠나 애쉬튼 장로의 손을 잡았다. 헤어지기 전에, 조 수상은 애쉬튼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는 중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방문하여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애쉬튼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고 있다.

“인간 관계에 대한 박사 학위”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가 중국의 수상을 영접하게 된 것은 참으로 디할나위 없이 완벽한 조치였다. 그의 배경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쉬튼 장로는 “인간 관계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지도자로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데서 가장 큰 만족을 찾는다. 그는 애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인해 교회 전체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갖가지 배경의 사람들에게 온건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사회 사업의 책임자요, 십대와 범죄자들에 대한 상담자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서 일해 왔다.

마빈 제레미 애쉬튼은 1915년 5월 6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마빈 오 애쉬튼은 후에 관리

감독단의 일원이 되었다. 철물상과 목재상을 경영한 그는, 마빈에게 철저하게 사업을 익힐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마빈의 모친인 레 제레미 애쉬튼은 헌신적인 아내였으며, 상호부조회와 초등학교에 활동적으로 공헌했으며 세 아들과 세 딸에게는 훌륭한 어머니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빈은 유타 대학 상대에 들어갔다. 그는 학생 일간 신문의 스포츠 편집자였으며, 집에서 경영하는 상점에서 반나절 근무를 했다. “부친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면, 스스로 벌어서 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대학을 마친 마빈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전 기간에 대한 경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사 농구 스타와 잡지 편집인

영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동안에, 선교사들은 새로운 교회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농구팀과 합창단을 조직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에쉬튼 장로는 두 가지 다 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밀레니얼 합창단’ 오디션에서 내가 얼마나 잘해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합창단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농구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실, 그는 선교사 팀인 “성도”의 주장이었는데, 영국에서 전국 우승과 프랑스, 릴리에서 전 유럽 우승을 거두었다.

마빈은 1939년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 이듬해에 노마 번트슨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녀는 유타 대학 여학생회 회장이었으며, 여러 해 동안 교사로 일했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 해에, 마빈은 그의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 후 그는 그들의 집에 드는 돈을 다 지불하기까지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을 계속했다.

자선 사업의 성역

1948년까지 에쉬튼 부부는 아들 둘 딸 둘을 두었으며, 마빈은 청남 상호향상회의 본부 임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이십일 년간 그 임원회에서 일했으며, 청소년의 요구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십대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주고자 해야 합니다.” 그의 지역 사회에서 그는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을 도와 주었다.

1969년에 에쉬튼 장로는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노령에 신병으로 쇠약해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으로부터 부름받은 마지막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그는 내게 ‘장로님이 나를 좀 도와 주었으면 좋겠소.’라고 약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에쉬튼 장로는 회상한다. “호소하는 듯한 그 말씀을 나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성역을 베푸는, 에쉬튼 장로는 “옥에 간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6)고 말씀하신 친절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에쉬튼의 과업은 교회의 사회 사업을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그는 알코올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의 능력은 소년기에 독수리 소년단 배지를 받음으로 나타났다.

전 대관장단 제일보좌였던 앤 엘든 테너 부대관장과 담화를 나누고 있는 에쉬튼 장로

중독자, 범죄자, 미혼모, 감옥 수감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감자들이 말일성도 가족을 주례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에쉬튼 장로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들은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보다 석방되고 난 후에 감옥으로 되돌아 오는 수가 훨씬 적다고 한다.

“장로님이 나를 어디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아십니까?”

한번은 조단 리버 성전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에쉬튼 장로에게 다가왔다. “장로님이 나를 어디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아십니까?” 하고 젊은이가 물었다. “유타 주립

에쉬튼 가족이 에쉬튼 장로를 축하해 주는 파티를 마친 후 사진 촬영을 위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들과 함께 모였다.



감옥입니다. 장로님이 성탄절에 그곳에 모여 있는 수감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에쉬튼 장로가 좀 놀란 기색으로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무슨 말을 했던가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고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러나 장로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가 나와 같은 사람의 손을 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도 어떤 가치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 젊은이의 회개와 용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에쉬튼 장로는 많은 시간을 상담하는 데 보내고 있다. 어느 스테이크 부장은 그에게 도덕적인 문제나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때가 자주 있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에서 그들을 도와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범법을 한 사람들과 상담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디서 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어디로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는 사람

그가 상담자로서 성공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믿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에쉬튼 장로는 이 원리를 그 자신의 젊은 시절에 경험했다. “내가 중 고등 학교 시절에 나는 기하학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나는 이 점수를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다.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점수를 받게 하지는 않겠다.’” 에쉬튼 장로가 회상하는 말이다. “그것이 반에서 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만난 가장 훌륭한 감독은 내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나를 믿어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집사로서 교회 마당에서 일하는 것만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인상

그의 봉사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은 그가 1971년 12월 2일에 리처드 엘 이반스 장로의 사망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많은 훌륭한 경험을 했다. “내가 가장 놀라운 영적인 인상을 받게 된 것에는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을 부를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맡을 사람에 대하여 기도해 보고 생각해 보고 나면, 신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님은 그 때까지 다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두 시에 인터뷰를 시작해서 다섯 시가 되면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서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구할 때는 대답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인 에쉬튼 장로는 그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려 주고 가르쳐 주는 것임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 한번은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어느 친구가 그의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그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는 팔로 그를 감싸 안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 아들이 자네의 현세와 영원한 세상의 아들로서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비활동적인 형제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이 성전에서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십여 년 동안 봉사해 온 에쉬튼 장로는 일흔 세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다. 전에는 모래 빛 색깔이면서 곱슬거리던 머리가 이제는 은발로 변해 있다. 그러나 것처럼 오랫동안 교회의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어 온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한 젊음이 그에게서 넘쳐 흐르고 있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면 그는 방안에 있는 누구보다도 우뚝 솟아나며, 그의 명량한 얼굴은 소년기 어린 미소로 주름진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도 유쾌하며,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그는 마치 전부터 알아 온듯이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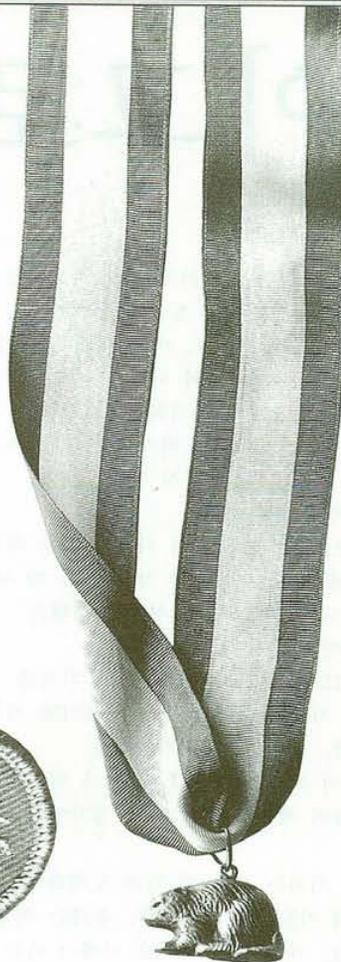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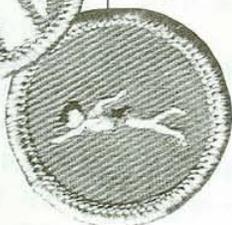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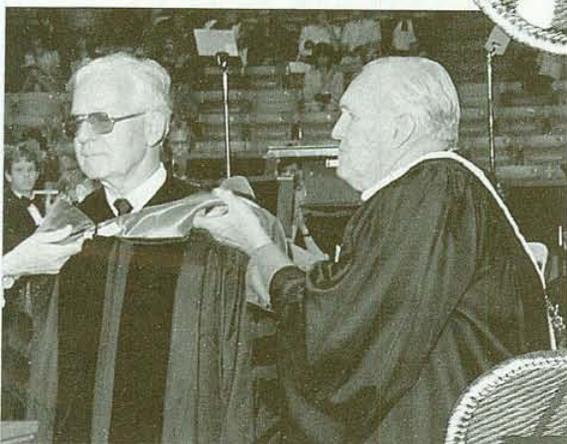
위 : 젊은 마빈 에쉬튼(뒷줄 중앙)이 1943년에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있다. 우측 위 : 1940년 결혼식 때의 마빈 제이 에쉬튼과 노마 벤트슨 에쉬튼. 우측 아래 : 1984년 에쉬튼 장로는 업적과 봉사로 인해 유타 대학에서 인본 문학 분야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맨 우측 : 에쉬튼 장로는 봉사 분야에서 가장 영예로운 소년단 상인 실비 비버 상을 수상했다.



체력 단련 활동을 에쉬튼 장로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가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고 느끼는 것은 그가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주 테니스를 치고자 하며 가능하면 아내, 노마와 함께 몇 마일씩 산책을 한다. “아내는 내게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 함께 하기를 즐겨 해 왔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 단순한 규칙

언제나 그의 가족이 그의 우선 순위에서 첫째가 되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두 가지 단순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충동에 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매를 들거나 비난하지 않고, 항상 교육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것이다. “그때마다 75퍼센트 가량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물어 보고,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잘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애쉬튼 장로는 지금도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위와 며느리들도 완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맞아들이고 있다.

애쉬튼 장로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다. “내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한다.” 그는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심을 갖고 있다.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에서 그는 항상 구세주께서 하신 권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거나, 지금 어디에 있거나, 어떤 재능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을 곧 기꺼이 맞아주실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50페이지)

형제애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우정은 순수하며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다같이 미치고 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일국의 수상으로부터 절망에 빠져 있는 죄수에 이르기까지 즐겁게 해준다. 고통받고 무시당하며 피곤에 지친 범 죄자까지 그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애쉬튼 장로를 아는 사람은 그가 과연 누구를 따르는지 알며 또한 구세주의 말씀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

고등 학교 영어 및 불어 교사인 브레 잉글랜드 형제는 바운티폴(유타) 제이십일 워드의 감독단 보좌로 일하고 있다.

산티아고로의 여행

마리 디아즈 마르티네즈

우리는 1977년 2월 27일에 우리의 고향 칠레에서 처음으로 갖는 지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산티아고로의 여정에 올랐다. 아내 테레사와 나와 네 아이들 오리아나, 도리스, 마리엘라와 마리오 이세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그곳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서, 특히 더 가기를 원했다. 우리는 버스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가 사는 로스엔젤리스에서 53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기차로 여행할 참이었다.

우리 가족 여섯 명과 로스엔젤리스 제이 와드의 다른 아홉 명의 회원들이 함께 여행을 했다. 여러 번 차를 갈아 탄 뒤에 우리 일행은 발디비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부터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열 시간이나 걸릴 것이다.

발디비아 역에서는 약 150명이 산티아고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는 도착했으나, 확성기로 기관이 고장났다는 방송이 있었다. 우리는 다른 기관차가 도착하기까지 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미 기차는 만원이어서 사람들이 계단에도 서 있고 창가에도 매달려 있었다.

더 남쪽에서 오는 다른 기차는 그날 밤 늦게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획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차에 올라타되, 가장 어린 마리오 이세가 타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얼마 후 환밤중에, 우리는 기적 소리를 들었으며, 사람들은 “기차가 온다, 기차가 온다.”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백 명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가 새로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기차도 역시 만원인 것을 보고 실망했다. 기차가 서서히 정차하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올라타 보려고 애를 썼다. 어린 마리오를 본 나는 그를 안으로 넣었다. 그러나 그때는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다만 몇 초 동안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마마가 “모두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다. 열살 난 마리오를 빼고는 모두 다 그곳에 있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어요?” 마마가 미친 듯이 말했다. 나는 겨우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설득시켰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우리는 발디비아에 있는 고장난 기관차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우리는 겨우 석탄 차고 뒷편에 올라탈 수 있었다. 넓이가 4미터도 되지 않는 공간에 가방과 짐을 든 채 열다섯 명이 탄 것이다. 한 시간쯤 뒤에 우리 기관차에 다른 기관차가 연결되었다. 열 시간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 남녀와 어린 아이들은 막대기를 잡고 혹은 한 발은 공중에 매달린 채, 또는 벨트에 매인 채 있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닥쳐 추위에 시달렸다. 기관차의 굴뚝에서 매연이 우리에게로 비오듯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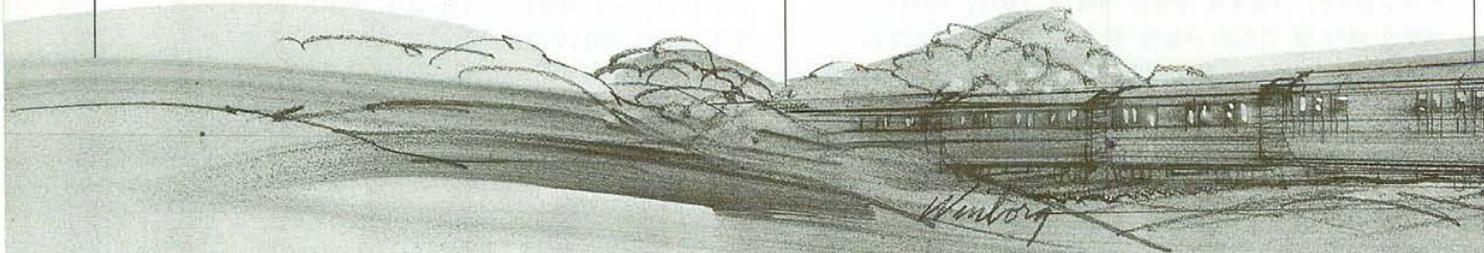
두 시간 반쯤 간 뒤에 구조 기관차가 디젤 기관차로 연결되었다. 때때로, 지금쯤이면 우리보다 세 시간쯤 앞서 가 있을 어린 마리오가 어찌 되었을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은 거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기차가 결국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오후 한 시쯤이었다. 산티아고 중앙역은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다시피 했다. 우리가 찾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우리는 “마마, 마마.” 하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서로 마리오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어린 마리오는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말해 주었다. 여행이 너무 길어 눈물이 터질 지경이었다. 드디어 그는 두 개의 좌석 사이의 공간을 찾아내 거기서 밤새도록 잠을 잤다. 산티아고에 도착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예언자를 만나 보아야겠다는 소망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날 밤 가진 신권 모임에서, 칠레 스타디움은 만원이었다. 어린 마리오와 나는 예언자로부터 40미터 가량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거기서 받은 영이 너무도 훌륭하여 우리의 회생이 가져다 준 위대한 축복을 생각할 때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솟아났다. 우리의 기이한 경험을 생각하고 있던 나는 마리오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나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으나, 어린 마리오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가닥 위안이라도 찾으려는 듯, 예언자를 향해 몸을 돌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리오가 거기서 사랑이 가득한



몸짓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마리오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로 달려왔다. “내 손을 보세요.” 하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예언자와 손을 잡았어요.” 그는 킴볼 대판장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사이를 빠져 나갔던 것이다.

팔 년이 지난 지금, 마리오는 대학에서 기계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예언자와 악수한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우리 모두, 특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에게 일평생 주님을 섬기라는 용기를 줍니다.” □



플로라 아뮤센 벤슨

예언자의 내조자, 주님의 여종

디런 헤드 로드리게즈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서로 기대어 어깨를 마주 대고 앉아 있다.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가?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하나?” 그는 눈에 소년기 어린 웃음 빛을 띄우며 아내에게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유명한 미국 민요 “록키산에 봄이 오면”을 부르기 시작한다. 아내는 높고 깨끗한 소프라노로 멜로디를 부르며, 그는 어울리는 감미로운 음성으로 화음을 이룬다. 머리가 거의 서로 닿을 듯하고 그들의 시선이 때때로 마주친다.

아름다운 하모니

음악적으로나 그 밖의 면에서 욕심여 년 동안 이루어 온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곳에 넘쳐 흐르고 있다. “잘 안되는군!” 노래를 마치면서 그는 웃으며 말한다. 그러나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합창은 분명히 듣기 좋은 곡이 되었으며, 에즈라 테프트 벤슨과 플로라 아뮤센 벤슨이 욕심여 년을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기도하고 일하면서 보여 준 하모니가 그대로 살아 난 것이었다. 그 세월은 그들을 아이다호 남부의 조그만 농장에서 워싱턴 디시의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내각으로, 또한 영국과 하와이 제도에서의 선교 사업으로부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대관장으로 이끌어 주었다.

“플로라는 내 생애에서 늘 나와 나의 잠재력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비전을 갖고 대하여 왔습니다.” 하고 벤슨 대관장은 말한다. “아내의 신앙과 내조가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언자의 아내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벤슨 자매의 말이다. 남편은 부름을 받아 온 세상을 두루 다녀야 했으며, 그녀는 변함없이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즐겨 하는 편이 아니나, 그녀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개척자 부모

플로라는 유태의 제일가는 보석상인 카알 시 아뮤센의 후처에게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자녀였다. 덴마크, 쾰거의 교양있는 집안에서 1823년에 출생한 카알은 스물다섯 살 때 길가에 굴러 다니는 팔리 피 프렛의 경고의 음성을 한 권 얻어 거기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부유한 보석상이며, 시계

제조업자이면서, 상당히 영적인 그는 곧 침례를 받았다. 덴마크에 있는 가족을 개종시키고자 한 그의 간절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는 유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사업을 정리하고 유럽을 떠났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솔트레이크까지, 아뮤센 장로는 포장 마차에 요리사와 소몰이까지 대동한 채 멋지게 여행을 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그는 보석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 상점은 곧 그 주에서 제일가는 잘 다듬어지고 분수가 설치된 새로운 도시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솔트레이크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부 유타주의 로간시에서 대단한 사업가요, 교회 지도자요, 또한 지역 사회 지도자였다. 그는 또한 틈을 내어 네 번의 선교 사업, 즉 덴마크에서 두 번과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봉사했다. 그는 가족들의 풍족한 생활을 뒷바라지 했으며 가족들에게 장거리 여행을 시킬 때도 많았으며, 지구를 두번씩이나 일주를 하기도 했다.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한 학자이기도 한 그는 유타에서도 가장 훌륭한 도서관과 가장 훌륭한 유화 소장품을 소유했다.

플로라의 어머니인 바바라 스미스 아뮤센은 1867년에 유타주의 투엘러에서 스코트랜드계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녀는 학문에 대한 깊은 동경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명랑하고 관대한 성품을 소유하고

유타 주립 대학)에 다닐 때였다. 그가 그녀의 친구인 사촌 동생과 함께 서 있는 데, 마침 그녀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며 주었다. “티”는 대학 구내를 방문하여, 그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기까지 대학의 가장 학습 과정을 밟는 것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 여학생은 누구지?” 하고 그가 말했다.

“아, 플로라 아뮤센이야.” 그의 사촌이 대답했다.

“내가 학교에 들어오면, 저 학생과 데이트하겠어.”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걸. 얼마나 인기가 많은 학생인데.”

“그렇다면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걸.” 하고 미래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자기가 결혼할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위 : 부모인 바바라 스미스와 칼 시 아뮤센. 맨 우측 : 유타 주립 농과 대학 졸업시. 앞 페이지 : 아이젠하워 대통령 축하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드레스를 입은 모습.



있었다. 그녀는 이십대 초에 그녀보다 사십이 세 연상인 카알 아뮤센과 결혼했다.

아뮤센 자매는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플로라가 막내로 태어났다. 플로라가 겨우 한 살 때 아뮤센 형제는 일흔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십대 후반에 과부가 된 아뮤센 자매는 로간 성전에서 의식 집행자로서 이십여 년 이상 봉사했다.

플로라 아뮤센의 성품은 사랑과 신앙이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며 다듬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의 생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플로라에게 신앙과 자신감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단단한 토대가 된 것은 모녀간의 지극히 가까운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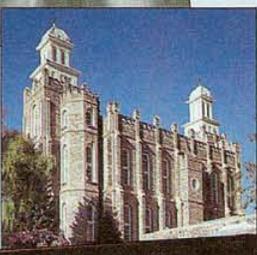
“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

플로라가 남편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인 “티”를 처음으로 본 것은 그녀가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농과 대학(현재의

그러나 아이다호에서 농사를 짓다가 온 젊은이는 아뮤센에게는 상당히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유타 주립 농대 학생회 부회장과 여학생 운동 클럽의 회장이었다. 그녀는 또한 여학생 테니스 단식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웨익스피어 연기로 명예 연극 단체에 선출되었으며, 악보를 준비하지 않고도 거의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났다.

벤슨 대관장은 “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과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된 날이 도래한 것을 회상한다. 플로라와 그녀의 “여왕같은 어머니”의 관대함으로 농촌 출신의 남학생은 이내 교양과 문화가 가득 찬 큰 집에서 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애정 어린 포옹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선택받은 여학생을 에스코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의 최선을 다하리라고



플로라는 하와이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유타주 로간 성전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과 결혼했다. 남편과 여섯 자녀는 그녀 생활의 주요한 초점이 되어 왔다.

“올해의 주부”로 뽑힘



결심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플로라의 생활에서 자기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에게 경건하리 만큼 친절을 보이는 것보다 내게 더 인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벤슨 대관장은 말을 계속 잇는다. “그들 모녀가 늘 함께 하는 것은 영감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플로라도 이 예의바르고, 잘 생기고, 상당히 영적인 젊은이에게서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농부와 결혼해서 일하고 요리하고 바느질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며, 힘을 주어 덧붙여 말한다. “그리고 나는 배웠답니다!”

젊은 이 한 쌍의 사교는 벤슨 장로가 영국의 선교부로 부름받아 중단되었다. 귀환한 그는 지체하지 않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녀의 선교 사업

그러나 플로라는 그녀 나름대로 계획표를 짜 놓고 있어, “아직 안되요.”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이 젊은이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멋진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더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밖에도, 그녀는 하와이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십 개월 동안 봉사했으며, 일부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마지막 팔 개월간은 그녀의 어머니가 선교사 동반자가 되었다.

젊은 아뮤센 자매가 선교사로서 받은 임무 중의 하나는 하와이 성전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다가, 모두 다 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녀가 선교사 숙소까지 가는 도중에는 울창한 숲과 간혹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야영지를 지나가야 했다. 그녀는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겁이 났다.

성전을 떠나기에 앞서, 그녀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한 줄기 빛 기둥이 나타나 그녀를 둘러쌌다. 그 빛은 그녀가 숲과 야영지를 지나 선교사 숙소에 오는 동안 줄곧 그녀의 주위와 앞길을 비춰 주었으며, 그녀가 무사히 안으로 들어가자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그 후로 주님을 믿을 때 안전함과 인도하심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으나, 그날 밤처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

선교 사업을 끝마치고 귀환한 플로라는 브리검 영 대학을 졸업한 에트라 테프트 벤슨과 결혼할 준비를 했다. 1926년 9월 10일에 플로라 아뮤센은 상당한 용돈을 쓰던 생활을 떠나 사랑하는 티와 빈약한 살림을 꾸려야 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많은 주식과 배당금을 상속받았어요.” 벤슨 자매의 설명이다. “나는 결혼할 때 이 모든 것을 홀로 사시는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나는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한 젊은이와 결혼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영예와 물질적인 직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우리가 함께 성취할 수 있고,

밀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택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혼 부부는 곧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 아이오와주의 아메스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 대학에서 매달 칠십오 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 과정을 밟으러 떠났다. 그들은 중고 포드 모델 티 픽업 트럭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싣고, 여기 저기 새는 텐트를 쳐 밤을 보내면서 동부로 여행했다.

남편이 과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벤슨 자매는 가정 경제학 과정을 들었다. 그들 부부는 언제나 십일조로 먼저 칠 달러를 주님께 바치기 위해 떼어 내고는 한 달 동안 그들이 쓸 돈을 늘려 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 내었다. “내가 배운 교훈은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고 벤슨 자매는 회상한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우리를 함께 묶어 주는 사랑으로 생활했습니다.”

결혼한 몇 주일 후에, “티”는 그들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테니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내 생애에서 그 때만큼 기가 막히게 참패를 당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고 벤슨 대관장은 웃는다. “내가 ‘어디서 이렇게 잘 치는 법을 배웠소?’ 하고 물었더니, 플로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유타 주립 농대에서 내가 여학생 단식 우승을 차지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벤슨 형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벤슨 부부는 아이다호 워트니에 있는 농장으로 이사했다. “우리는 농장에 빛이 많았습니다.” 벤슨 대관장의 회고담이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빛을 내어 암소를 사다가도, 귀한 아기를 낳게 되어 의사에게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것을 팔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젊은 가족을 오랫동안 농장에 있게 하지 않으셨다. 벤슨 형제의 관심은 프레스톤에서 다시 아이다호의 보이시로, 그런 다음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에서 학업에 더 정진하는 것에 쏠렸으며, 결국은 워싱턴 디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943년에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다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년 뒤인 세계 제이차 대전이 끝날 무렵, 벤슨 장로는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부름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조직하고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과 의복과 약품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벤슨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으며 벤슨 장로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벤슨 자매와 자녀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떠나 있던 열 달 동안 벤슨 자매의 건강은 몹시 좋지 못했으나, 벤슨 자매의 확고한 태도는 조금도 시들지 않았다. 벤슨 장로가 떠난 지 삼 개월 쯤 되었을 때, 난 지 열아홉 달 된 딸, 베스가 폐렴으로 몹시 앓았다. 벤슨 자매의 변함없는 신앙과 지칠 줄 모르는 간호와 신권의 축복으로 베스는 건강을 되찾았다.

벤슨가의 생활의 또 다른 장은 벤슨 장로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권고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돕는 미국의 농림 장관을 수락한 지 몇 개월 뒤에 시작되었다. 벤슨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수도로 이사시켰으며,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가족에게 바치고 워싱턴 사교계에는 그다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은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벤슨 자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인과 몇몇 대통령 보좌관의 부인들을 오찬에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벤슨 집안에서 늘 하는 식대로,

그 행사를 위해서 외부인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와 그녀의 네 딸들은 몇 주일 간이나 메뉴를 면밀하게 계획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여흥을 준비하며, 예절과 의전 절차를 살펴보았다.

벤슨 자매가 손님들이 그런 행사에 의례히 있기 마련인 커피와 담배와 카드 놀이가 없어 서운해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저엘과 집에서 만든 살구 주스로 만든 칵테일은 대 성공을 거두었고, 그 당시에 동해안을 순회 공연하고 있던 브리감 영 대학 합창단의 연주도 훌륭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후에 그 부인들에게서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편지들이었는데, 한결같이 ‘물몬이즘’을 대하게 된 경험과 노래를 들려준 훌륭한 젊은이들에 대한 찬사를 담고 있었읍니다.” 벤슨 자매의 회고담이다.

워싱턴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에, 농업 정책에 대한 논쟁과 비판이 뒤를 이어, 벤슨 장관은 고위 정부 관료로 있는 그 누구보다도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온건한 태도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아메리칸 매거진*은 그것이 그의 가정과 가족간의 생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벤슨 자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벤슨 장관]은 그의 종교와 그의 밀접한 가족과의 생활에서 공적인 생활에서 보기 드문 힘과 침착성을 얻었다. 플로라가 가족의 동태의 중심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가족의 친지들도 그녀가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아메리칸 매거진*, 1954년 6월, 109~110페이지)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벤슨 자매의 생활의 주요한 초점이 되어 왔다. 그녀의 남편은 집안 책임의 대부분을 아내의 어깨에 지워 놓은 채, 결혼 생활의 거의 반을 집에서 떠나 있었다. 그녀는 집안에

자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미국 대통령에게 초대받은 것이라도 거절을 하곤 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복음과 함께 할 수 있기만 하다면 오두막집에서라도

위: 미국 대통령 부인인 메이미 아이젠하워와 부통령 부인인 패트 닉슨과 함께 한 벤슨 자매



기꺼이 살겠습니다.” 하고 벤슨 자매는 말하며,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덧붙여 말한다. “그런데, 오두막이라도 깨끗하고 내가 창문에 커튼을 해 달 수는 있어야겠지요.”

벤슨가의 가족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들 리드와 그의 아내 메이와 그들 사이의 아홉 자녀는 유타주 프로보에 살고 있으며; 아들 마크와 그의 아내 릴라와 그들의 여섯 자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딸 바바라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 워커와 그들의 다섯 자녀는 캐나다의 알버타, 켈거리에서 살고 있으며; 딸 베버리와 그녀의 남편 제임스 파커와 그들의 네 자녀는 버지니아의 버크에서 지내며; 딸 보니와 그녀의 남편, 로웰 메드슨과 그들의 여섯 자녀는 콜로라도의 리틀톤에서; 딸 베스와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버튼과 그들의 네 자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다. 모두 합하여 그들은 스무 명의 증손자를 두고 있다.

“나는 열두 명의 자녀를 원했지만, 그중에서 반만 선택하여 두게 되었어요.” 벤슨 자매는 말을 덧붙인다. “우리가 매번 쌍둥이를 낳았다면, 열두 명이 되었겠지요.”

플로라가 열여덟 달이 되었을 때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를 속이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은 그녀의 분별력과 잘못되지 않는 판단에서 성취되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녀가 받은 인상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느낌은 나중에 가서 정확하게 나타곤 한다.

“어머니는 영의 속삭임을 듣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고 리드는 동의한다. “어머니가 ‘네가 이렇게 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하고 말씀할 때면, 나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말씀이 맞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어머니가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그 사람은 직접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벤슨 부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 여전히 자주 산으로 드라이브도 가며, 즐겨 들리는 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나누기도 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한다. 매일 같이 벤슨 자매는 물몬경을 소리내어 남편에게 읽어 주며, 그런 다음에는 그들이 읽은 것을 토론한다.

두 분 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최대의 장점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품고 있는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아내의 충성에 대하여 나는 한번도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벤슨 대관장은 강조한다. 두 분다 지금도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한다.

최근에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즐겨 부르는 “테어스 어 롱 롱 트레일 와인딩”과 “렛 미 콜 유 스윗하트”를 부른



뒤에, 벤슨 대관장은 육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미소를 보내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요... 사실 우리는 그러하오.” □

우리 마음속의 소망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누구나 헤의 영광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궁극적인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바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 “우리 마음속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경전에 나타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내가 범조계에서 삼십여 년간 다루어 온 국가법으로 정한 인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보상은 우리의 생각과 소망에 의하여, 또한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은 주로 우리의 행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그의 집 바깥에 멧있는 차를 세워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 차를 갈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것을 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십계명의 하나를 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 : 17 참조) 영적인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은 인간의 법은 조금도 범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간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법으로 형벌을 받게 될 잘못을

인간의 법은 대부분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범하게 될 것입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법에서는 차를 몰고 가는 여러분의 의도를 찾아 내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웃 사람이 동의해 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차를 빌릴 생각이었다면, 구태여 범죄의 테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킨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잠시 후에 돌려주었다면, 여러분은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차를 가져 갈 생각이었다면,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판사나 배심원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특정한 행위의 결과를 판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심사할 때도 있을 것이나, 법은 그러한 소망만으로는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경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엘마서를 읽어 보면, 니파이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줄 수 있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강제할 법이 없”(엘마서 30 : 11)었습니다. 법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 볼 믿을 만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내밀한 생각과 소망을 토대로 해서만 결과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암몬이 라모나이 왕을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내려다보시며 태초로부터 친히 그의 손으로 모두를 지으셨으므로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뜻이나 생각을 모두 아시”(엘마서 18 : 32)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히브리서 4 : 12-13)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도 판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도 판단하십니다. 자유의지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영원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뜻하고, 소망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소망에 대하여 죄악감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면과, 의로운 소망에 대하여 축복을 약속해 주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다 같이 적용됩니다.

바라는 것에 따르는 죄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바라는 것에 따르는 죄를 정의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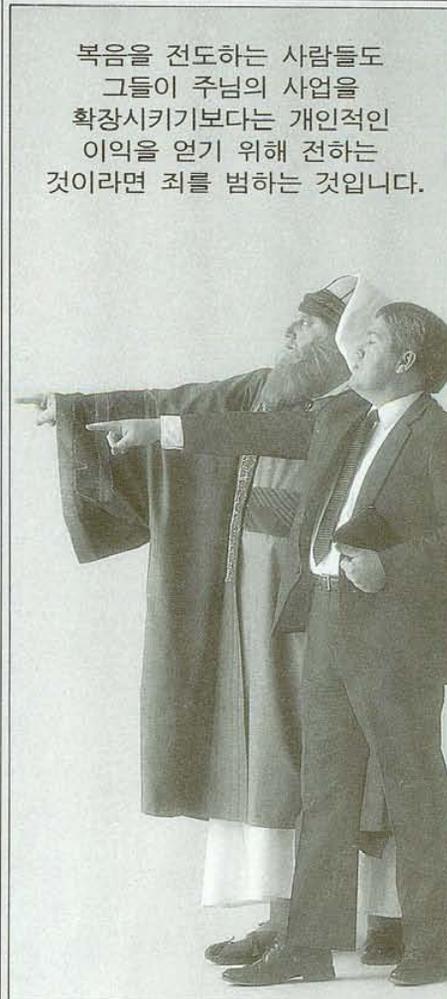
“보라 옛 사람이 기록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저의 마음에 간음을 행한 것이라.”(니파이삼서 12 : 27~28 ; 마태복음 5 : 27~28 참조)

신약은 또한 생각만으로도 죄를 범하는 예가 되는, 분노와 불의한 느낌도 꾸짖으셨습니다.(마태복음 5 : 22 참조)

우리가 대부분이 의롭다고 간주하는 행위인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주님의 사업을 확장시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전하는 것이라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금전으로 행하는 자는 나아가 가르치며 저들 스스로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세상의 칭송과 유익을 구하며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않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주님의 사업을 확장시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전하는 것이라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라.”(니파이이서 26 : 29 ; 또한 엘마서 1 : 16 참조)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은 또한 마음으로 바라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이사야 29 : 13 ; 마태복음 15 : 8 ; 니파이이서 27 : 25 ; 요셉 스미스서 2 : 19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작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시편 78 : 37) 없음을 비난했습니다. 물론은 우리의 마음이 옳지 아니하면, 선한 행위도 의로운 것으로 헤아림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악한 자가 선을 행하지 못하리라 하시었으니, 만일 간악한 자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다...할지라도 이를 참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

“보라, 이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으로 용납되지 아니함이요, “보라 간악한 자는 헌물을 바칠 때 애석한 마음으로 행함이라. 그리하여 결국은 헌물을 바치지 아니한 것으로 헤아려져 하나님 앞에 간악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요.”(모로나이 7 : 6~8)

물론은 이 원리를 우리 기도에도 적용했습니다. “참 마음으로 구하여 간구하지 아니할진대 사람에게도 또한 간악한 자라 헤아려질 것이라. 참으로 저에게 유익함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심이라.”(모로나이 7 : 9)

우리의 소망을 교화시킴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 향하여 정함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 향하여 정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께도 옳은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허용된 의지력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다스리게 해주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온전히 의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릴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소망에 대한 교육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267 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혼자 되신 나의 어머니는 그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느낌에 대하여 기도하거라.”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세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우리의 경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옳은 느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옳다면, 우리의 마음 속의 소망은 옳은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좀더 의로운 행동을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두 개의 성구는 시편 이십사 편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자라다.”(3~4절; 또한 엘마서 5:19 참조)

우리가 악한 행위를 삼간다면 우리는 깨끗한 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금지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 결국은 성스러운 곳에 설 자는 그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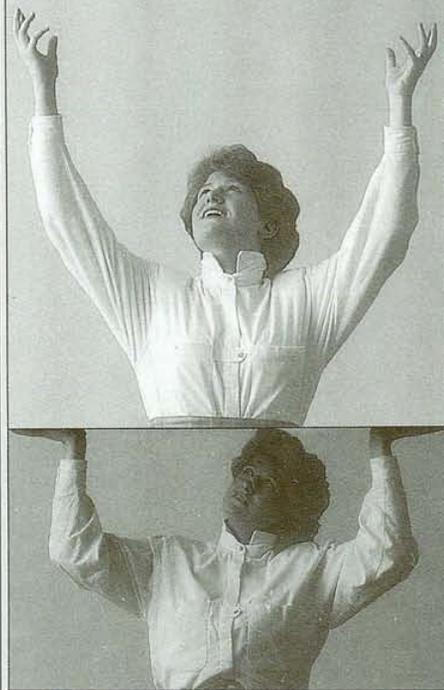
느낌과 소망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악한 행위를 삼간다면 하나님의 율법하에서 죄를 짓기 않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과 소망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증오에 가득 찬 느낌은 심판의 날에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까? 질투하고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불가능할 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의로운 소망에 대해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탐내는 것은 어떨 것입니까?

사업 면에서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아무런 행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속일 의도가 있는 사업상의 업무에 우리가 관련된다면 아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법에서는 우리의 희생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율법하에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발행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과 같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기보다는 부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나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에 의해서만도, 분명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또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축복에 왕왕 따르는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의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소망에 대한 축복

나의 장인이 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건상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종종 “고맙네. 그 행위에 대한 훌륭한 의도를 받아들일겠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소망을 분별하실 수 있으므로 의로운 소망을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 내느니라.”(교서 33:1) 어떤 사람이 참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지마는 할 수만 있다면 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아실 것이며, 그에 따라 그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경전에서 이것을 가장 잘

예시하고 있는 구절은 주는 것에 대한 베냐민 왕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다음으로…가난한 자에게 이르노니, 가진 것이 없다 하여 구걸하는 자를 거절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저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주지 못하나, 내가 지닌 것이 있으면 주리로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노니, “너희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진대 죄가 없으려니와…”(모사이야서 4:24~25)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이 이르든지 인간의 원대로 허락하시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구원도 허가하시며 죽음도 허락하심을 내가 알아라…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주어지리라.”(엘마서 29:4~5)

이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나머지 길에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효력을 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색한 느낌에 대하여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두 가지 예방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행위가 참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소망이 대체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행위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의로우신 심판관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위에 대하여 대체되기 위한 소망은 피상적이고,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시편 24:3~4)



둘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복음의 의식의 대응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의 복음의 의식을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해의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해서, 현대의

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교성 131:2) 이러한 성구에서나 경전의 다른 어느 구절에서도 이에 대한 예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생에서 의식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수행할 것을 자비롭게 허용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것을 소망하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행하는 듯한 비중으로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살아 계신 대리자의 사랑에 찬 봉사를 통하여, 세상을 떠난 영들은 그들의 마음속의 소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과 소망에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소망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하게 보이는 행동은 그것이 참되고 의로운 의도에서 수행될 때에만 축복을 가져 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불가능할 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의로운 소망에 대해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말일성도는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개심한 사람으로 그는 바깥에 나타나는 행위로 인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1985년 10월 8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영적인 모임 말씀 중에서 발해

없어진 책

안나 마그리테 크로 톰슨

독

일 북부 지방의 아름다운 여름 아침에 남편과 나는 덴마크의 프레데릭스베르그에 있는 우리 집에서 차를 몰고 나의 외할머니가 사셨던 군을 향해 출발했다. 전부터 몹시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어린 아이처럼 고대해 오던 나는 “라데룬트”라는 길 안내 표지가 처음 눈에 뜨인 순간 목이 다 막히는 것 같았다. 교회에 가입한 이후로 나는 성전 사업을 위해 외할머니의 이름을 제출하게 되기를 몹시 원해 왔다. 계보 탐구를 하는 도중에 자주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았던 나는, 외할머니에게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열망해 왔던 것이다.

독일 북부 지방에서는 중요한 기록은 중앙의 기록 보관소에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교구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외할머니의 기록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라데룬트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후 나는 그러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책을 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사제의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우리가 라데룬트에 있는 아담한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사제의 서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녀는 내가 빌리기로 허락받은 책을 가지러 보관소로 갔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당신께 필요한 책이 어제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지금 보니 없군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함께 책 선반을 다 찾아 보았으나,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몹시 실망이 되었다. 나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와서 나를 도와 주시지 않는 것인가? 나는 몇 시간 후에 있을 다음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 차가 있는 곳으로 왔다. 나는 울면서 앉아 있다가, 외할머니의 가족이 사셨던 작은 마을까지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가족이 그곳에 살았던 때로부터 일백여 년의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나는 단지 그 마을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정오경에 그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으며, 아무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우리가 아홉이나 열 집쯤 지나쳤을 때, 드디어 집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노부인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차를 멈추었으며, 나는 그녀가 나의 할머니의 가족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리로 뛰어갔다. 나는 그녀의 대문에 서서 문패를 보았다. 외할머니의 가족의 이름인 카스텐슨이라는 이름을 본 나는 가슴이 크게 뛰었다!

그때 그 부인은 문을 열고 듣기 좋은 슬라브 액센트로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내가 나의 처지를 설명하자, 그녀는 “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계보를 보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가져다 드리지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1600년대까지의 나의 친척을 망라한 족보를 내 앞에 펼쳐 놓았다. 각 부부의 명단 옆에는, 그들의 출생, 결혼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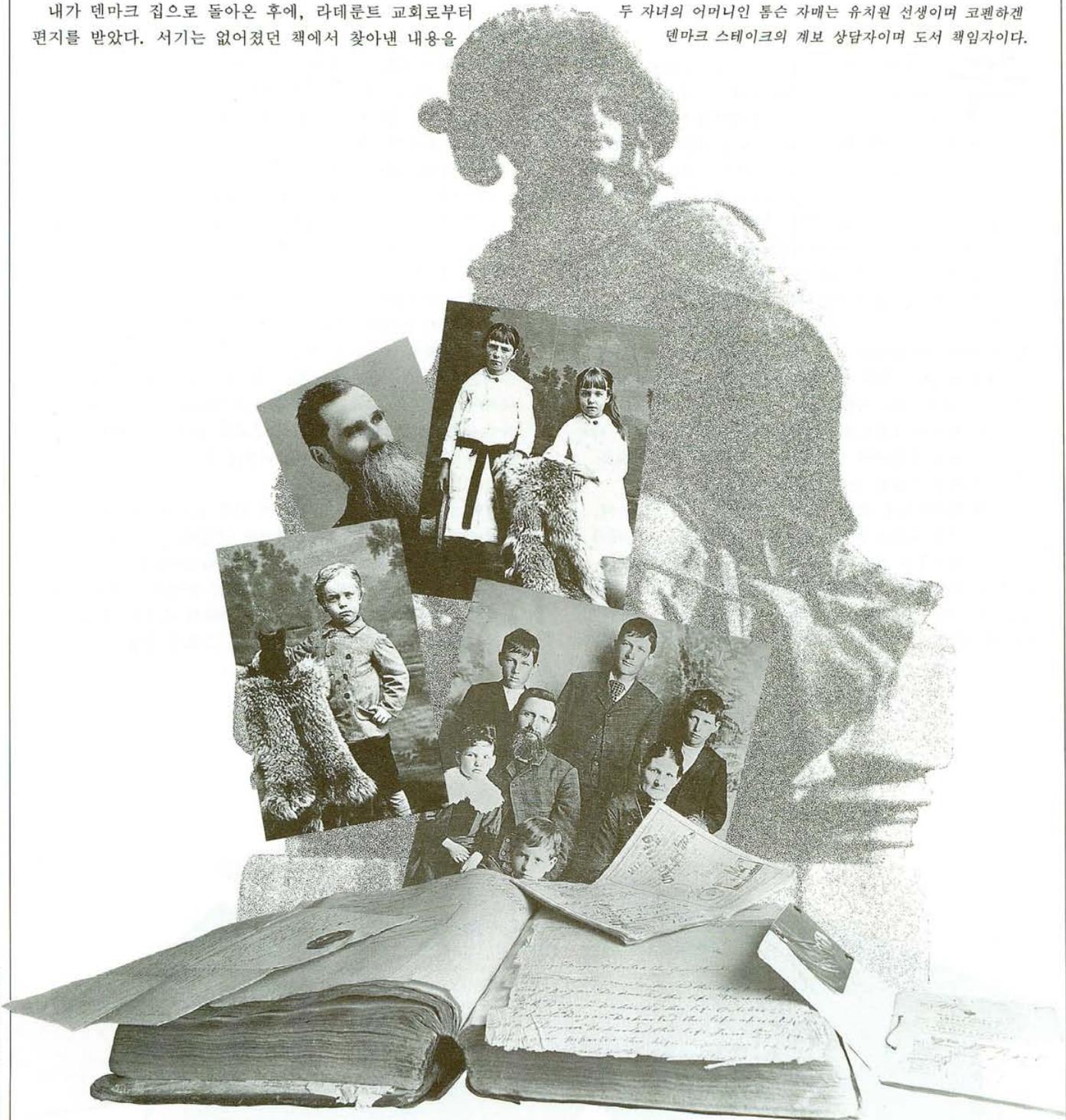


사망 날짜가 적혀 있었고, 자녀들도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출생지와 결혼 장소도 적혀 있었다. 이 한 뭉치의 문서는 내가 교회 기록 보관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나의 할머니의 가족의 기록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을 제시해 주었다. 이제 나는 어디서 그 가족의 자녀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덴마크 집으로 돌아온 후에, 라데룬트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서기는 없어졌던 책에서 찾아낸 내용을

동봉했으며, 실수로 그 책이 잘못 꽂혀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실수”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만이 아니라, 나의 독일인 가족 수백 명을 내가 찾아낸 때문이었다. 참으로 주님은 내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내내 도와 주고 계셨던 것이다. □

두 자녀의 어머니인 톰슨 자매는 유치원 선생이며 코펜하겐 덴마크 스테이크의 계보 상담자이며 도서 책임자이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결혼의 애정 생활에 대한 소고



브렌트 에이 바알로우

오래 전 나의 젊은 선교사 시절에 새로운 동반자를 지명받았을 때였다. 우리는 우리를 추위 속에서 초대해 준 선교 목사를 만났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견해를 서로 교환한 뒤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물론은 성생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뜨거운 코코아 컵을 들여 마셨다. “자,” 하고 잠시 말이 없던 목사가 말했다. “성생활에 관한 물문의 철학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내가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챈 나의 동반자가 대답했다. “목사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결혼 상담자로서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나는 학생들과, 친구들과, 전문가들과 말일성도 회원이나 비회원들에게서 다 같이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의 어린 동반자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혼의 유대 밖에서 그것을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데서 기인하는 슬픔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예언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마서 41:10)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결혼 생활에서의 합당한 애정 생활로 인한 좋은 점을 믿고 있다. 우리는 결혼한 부부들이 그들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키워 나갈 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조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의 애정 생활로 인한 기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은 그들의 성적인 관계에서 좌절을 맛보고 심지어는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사실상, 기혼 부부가 상호간에 애정 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이혼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우리 교회내에서도 그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행해진, 이혼 사유를 연구해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성이 첫째가 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호사에게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블,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312 페이지)

애정 생활에 관한 그릇된 개념

그처럼 훌륭한 어떤 것이 어떻게 그처럼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곤란한 것의 일부는 그릇된 개념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후자는 성적인 애정은 우리가 자녀를 갖기 위한 필요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필경 그들의 부모는 당황한 나머지 그들과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필경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순결의 법을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성생활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몇몇 그릇된 개념은 성구를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된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자면, 아내는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구를 아내들이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남편들에게 그들 자신을 다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애정의 표현은 부부간의 하나됨을 증진시키지 못할 것이다.

훌륭한 능력

그러나, 실제로 성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훌륭한 능력이다. 김볼 대관장은 다음 견해를 지지하였다. “...성경에는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말하고 이를 성스럽게 보고 잘 사용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간에 자력을 주신 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증식시키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를 참다운 하나로 만드는 사랑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신 ‘한 몸을 이루’(창 2:24)라는 명령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 빌리 그래함 인용, 성도의 빛, 1974년, 8월호, 36페이지)

성과 성생활이라는 말이 경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 대신에, 안다 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애정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안다” 또는 “알게 된다”는 것은 부부의 사랑에서 깊이 만족한 면을 말한다. 훌륭한 부부 생활은 예를 들어, 배우자의 한 사람이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성생활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애정의 측면에서 서로를 아는 것은

건전한 부부 관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합당한 토론 주제

부부 관계의 신체적인 차원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배우자들이 서로를 신체적으로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 문제나 자녀 교육, 여가 활동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들이라도 이러한 애정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때는 불편한 감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애정 관계는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이다. 애정 문제에 관한 성스러운 본질상, 친구들이나 다른 친지들과 함께 논의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부 사이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이십 세기의 사도이며, 대관장단의 한 분이었던 휴 비 브라운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많은 기혼 부부들이 결혼 전후의 무지하고도 친한 성행위라는 위험한 암초에 걸려 파산이 되었습니다. 신혼 부부들이 성의 합당한 위치와 기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당히 무지한 까닭에 많은 불행과 많은 파탄이 가정에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기능에 관한 한 거의 무지한 상태로 결혼 제단에 나옵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영화롭고 가장 친밀한 것(결혼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임에 합당하고자 한다면, … 그들이 결혼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조화로운 성생활의 섬세하고도 성결한 면에 대하여 솔직하게 토론하고자 한다면… 많은 슬픔과 가슴 아픔과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러분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0년, 22~23, 73페이지)

이러한 애정 관계—그에 수반되는 감정적인 느낌을 포함하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는 머나 먼 길을 갈 수 있다.

사랑과 헌신과 단합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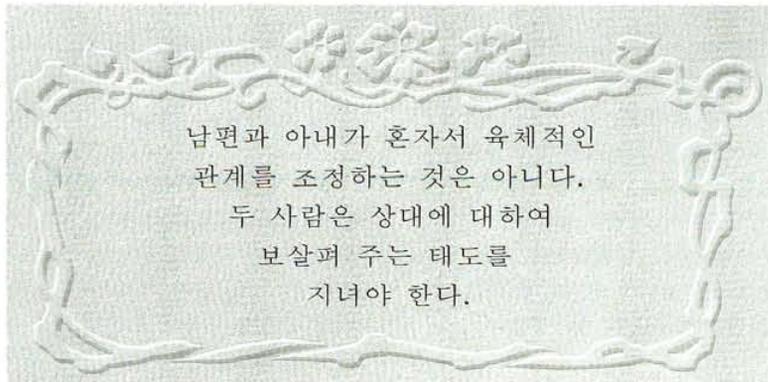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러한 면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점은 배우자 중에 누구든지 현명치 못하게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려 할 때 발생한다. 성생활은 사랑하고 주는 것의 절대

필요한 면이 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이다.

결혼 상담자로서 일하면서, 나는 성적인 표현은 상식이라는 차원에서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김불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합당한 성 경험은 자녀를 낳는 일에만 국한한다는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6년 4월, 3페이지) 자녀를 낳는 것은 결혼의 애정 생활에서 절대 필요하고 훌륭한 면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만 애정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과 헌신과 단합의 표현으로서 위대한 잠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릇되게 사용되는 애정 표현

한편, 성 경험의 유일한 이유를 신체적인 만족에서 느끼려는 부부들이 있다. 이들은 쾌락을 얻는 데에만 탐닉하여 사랑의 감정은 다 잊어 버리고 만다. 지금도 성 경험을 무기나 매매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어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매우 이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성 경험을 결혼생활에서 어떤 단합의



요소라기보다는 과밀적인 것이 되게 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경험과 느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역시 결혼 생활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넓은 고정 관념

한편 넓은 고정 관념에

매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으로 약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때때로 텔레비전이나 잡지, 책 및 영화에서 보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는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교묘하게 또한 그릇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 매체에서 균형잡히고, 성숙하고, 사랑하는 결혼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남성은 흔히 강하고 멋있는 영웅으로서, 거의 헌신하는 일이 없이 다만 성이라는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성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다만 낭만적이거나, 실용적인 면으로 일에 몰두하거나, 어리석거나, 어떤 경우에서든 남성의 한 가지 욕망만을 충족시켜 주는 한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좁은 견해는 남성과 여성의 개체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남성이나 여성이 각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재능과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진리를 망각하고 상대방을 하나의 목적물로 생각할 때, 성 경험은 애정을 증진시키는 데 거의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문제도 결혼 생활에 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처럼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깊숙히 자리잡은 감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감독이나 자격이 있는 상담자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도 신체적인 면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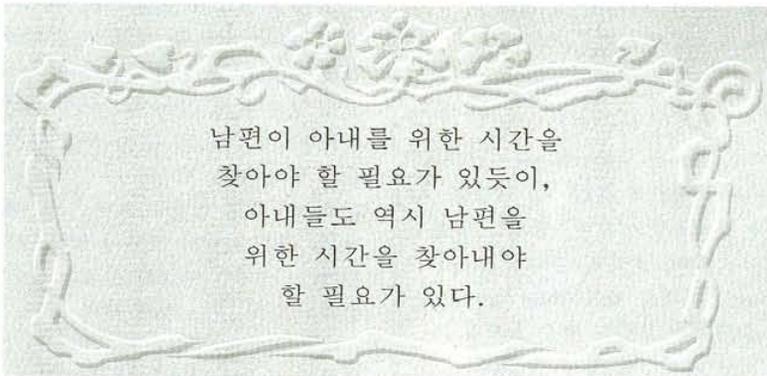
결혼 생활에서의 다른 모든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이기심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하는 조건없는 사랑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결혼 관계보다도 더 훌륭한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우리들 중에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만큼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다른 모든 관심 사항을 제쳐 놓고 남편이나 아내가 현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항상 배우자만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흔히 제삼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일을 해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해줄 때가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은 행복해 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다. 결혼 생활에서 성공을 거두는 한 가지 위대한 열쇠는 무엇이 우리 배우자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어 그 행복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이다.

정절

우리가 성 경험을 결혼 생활의 조화와 행복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고 받는 어떤 것



이상의 것이 된다. 나는 그것을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함께 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것은 정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는 우리는 우리의 보호하에 맡겨진 것은 무엇이나 향상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5:14~30)

참조) 결혼 생활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이나, 충실함 및 매일 매일 가족을 보호하는 등의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 공동으로 보호하는 예는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세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어떤 일을 하고 함께 그 책임을 진 예를 보게 된다. 1절은 이렇게 씌어져 있다. “아담은...땅을 갈며 들의 모든 짐승을 다스렸으며...그 아내 이브도 그와 함께 일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은 일 또는 노동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졌다. 인생의 다른 차원을 나누는 중에, 그들은 성 경험을 나누었으며 함께 자녀를 낳고(2절); 함께 기도하고 영감을 받았고(4절); 함께 계명을 받았으며(5절); 그들의 자녀를 함께 가르쳤으며(12절); 함께 슬퍼했다.(2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여, 공동으로 성적인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찌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고린도전서 7:3~4)

나는 이 말을 남편과 아내가 혼자서 육체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두 사람이 상호간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두

사람은 상대에 대하여 보살펴 주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정절에서 그들이 맡은 바를 완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결혼 생활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함께 기쁨을 경험할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내는 남편이 모든 시간을 직장이나, 교회 모임이나, 아내를 제쳐 놓은 취미 활동이나 텔레비전이나 신문 앞에서만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내가 빠지게 되는 곳에서만 항상 시간을 보내려 드는 남편은 아내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해주는 셈이 된다. 사실은 그의 아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교리와 성약 42편 22절(“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될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배우자의 삶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며,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정치 생활, 기타 다른 어떤 이해 관계나 사람이나 사물 등이 배우자를 우선할 수 없게 된다.”(용서가 낡는 기적,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9년, 228페이지)

남편이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는 관계의 다른 면에서 애정을 발전시킬 시간을 찾을 수 없다면, 아내는 성적인 면에서의 애정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생활에서의 사소한 문제같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어느 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남편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내 느낌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가를 묻고, 꼭 껴안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이 아내들의

요구 사항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미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집안 일을 도운다거나 자녀들을 돌보아 줄 때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또한 아내들이 병이 나거나, 임신 중이거나, 집안 일로 지쳐 있을 때 그들의 남편들이 도와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감사 표시와 칭찬과 사랑한다는 등의 말과 같은 조그만 말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요소들이 결혼 생활에 보탬이 될 때, 성 경험은 좀더 의미가 있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여분의 것”이 없이는, 성적인 애정은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아내도 역시 낭만을 즐긴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남편과 아내가 낭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우에 생긴다. 많은 아내들이 그들이 내리는 정의에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을 함께 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말로나 글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표현이거나, 그 두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조그만 선물 등을 포함한다. 결혼 생활에서의 낭만이 성 경험에만 국한된다면, 아내들은 사랑받는다는 것보다는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내로부터 여러 번 받은 불평의 한 가지는 결혼 생활에서 거의 애정 표현이 없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내가 시행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부인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 그들이 바란 목록에서 성적인 만족을 상당히 높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인들은 성적인 면을 떠나 애정 행위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많은 부인들은 남편과 손을 잡고 있을 때라든가, 함께 앉아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아내는 또한 성적인 관계 자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감사해 한다.

남편이 아내의 다양한 욕구를 알아내어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과 그러한 사랑의 모든 표현은 똑 같이 향상될 것이다.

아내에게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도 역시 여러 가지 욕구와 희망과 열망을 지닌 인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중 매체에서 남성은 그러한 관계에서 다만 한 가지만을 원한다는 생각을 소란스럽게 전해 주고 있다. 남성에 대하여 이러한 근시안적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된다. 결혼 관계에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을지라도 남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남편들에게 적용되는 많은 개념은 역시 아내들에게도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시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듯이, 아내들도 역시 남편을 위한 시간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나, 자녀를 돌보는 일이나, 집안을 치우는 데에 보낸다. 밤이 되어 자녀들이 겨우 잠자리에 들어가, 부모가 잠시 그들의 곁에서 떠나 있게 되면, 아내들은 흔히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바느질을 한다거나, 책을 읽고, 전화를 거는 등의 “긴장을 푸는” 일을 하기를 더 즐긴다. 남편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지쳐 있고,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기가 심상이다. 남성은 그러한 행위를 고마와하거나 이해하려 들지를 않는다. 하루의 일이 실제로 지칠 정도로 많아 남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이나 정력을 거의 낼 수가 없다면, 그녀와 또는 그 부부는 함께 그녀의 생활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녀가 영원히 참여하게 될 가장 중요한 관계에 유익을 가져 오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남성은 또한 애정을 원한다. 애정에 관한 문제라면, 어떤 면에서는 남성은 여성만큼 낭만적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아침에 직장에 가기 전에 아내를 껴안아 주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느끼는 사랑의 낭만적인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애정의 표현에 대하여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은 안되요.”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남편은 아내가 그들이 나누는 사랑에 무관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남편에게 있어

이러한 표현은 아내에게 감사의 말과 친절한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는 남편에 관해서 진실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바쁜 일손을 멈추고 잠시 포용을 하거나—더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애정에 찬 행위를 먼저 해주는 것은 자신과 남편 사이의 사랑을 더 깊게 해준다.

성 경험에 관해서 부인들 중에는 그들의 “권리”, 흔히 예나 아니오를 말하는 “권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책임이나 기회의 관계이기도 하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는 두 사람 다 베풀어 주어야 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나는 남편을 신체적, 정서적 및 영적으로 아내 가까이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있는 부인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한편으로, 나는 아내가 남편의 욕구와 관심을 무시할 때 남편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소외감의 정도를 알아차리는 부인들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현명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남편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아내에게 주셨다고 나는 믿고 있다.(창세기 2:24 참조) 그 비결은 헌신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 한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향상될 것이다.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자연스런 애정은 현명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삶과 행복의 주요 원천이 됩니다—그것은 모든 유덕하고 하늘의 사회의 것을 굳혀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과 단합을 증진시키는 데 적합하게 되어 있는 애정을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 주셨습니다.”(파커 프렛 로빈슨, 팔리 피 프렛의 서한,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뉴스 프레스, 1952년, 52~53페이지) 남편과 아내가 기꺼이 그들 자신을 내어주기를 배우고 상대방의 진정한 욕구와 소망을 이해할 때, 이러한 자연스러운 애정은 솟아나, 결국은 그러한 것이 “그들의 행복과 단합”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

지역 봉사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젠 언더우드 핀보로우

부 편집자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것은 공공 사업의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문의 제목이었으며, 그것이 로저 프리먼의 관심을 끌었다. 프리먼 형제는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 주일 학교 교사이며, 가정 복음 교사이며, 아홉 자녀의 아버지이다. 분명히 아무도 그가 크리스찬답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 질문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프리먼 형제는 광고를 낸 공공 사업 기관에 연락을 하여 자신이 어떻게 도움 수 있는가를 문의했다. 그 기관에서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몇몇 노인의 명단을 그에게 주었다.

몇 년 전 그날 이후로 프리먼 형제는 그 도시의 낡은 구석을 찾아 다니면서 잔디도 깎아 주고, 가구를 수리해 주고, 마당을 쓸어 주고, 기타 잡일을 했으며, 때로는 자녀들도 몇 명씩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는 매달 그 기관에 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한다.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을 보고는 울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인간적인 유대를 맺기도 한다. 그는 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어디서 그는 가족과 교회 친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손길을 내밀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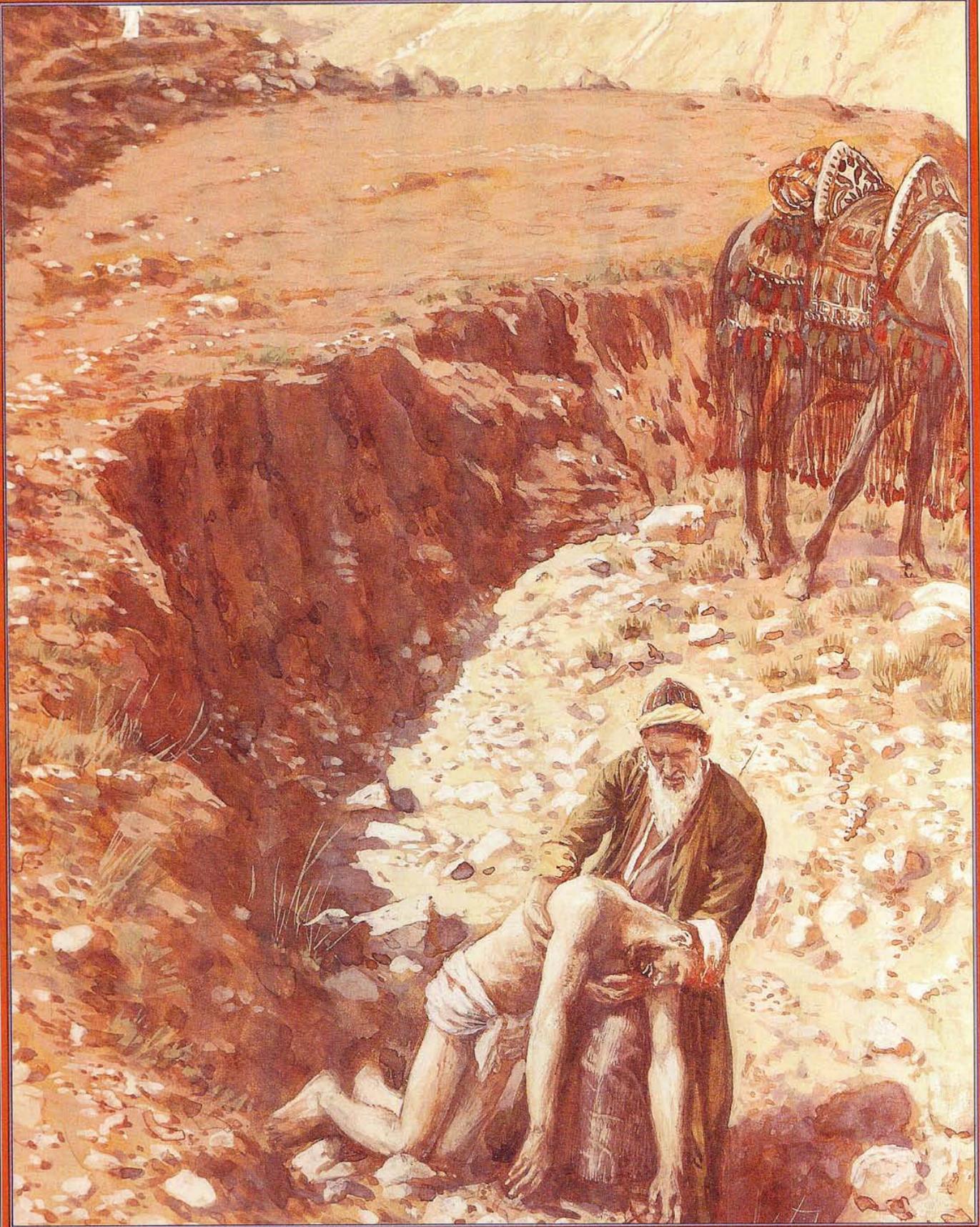


시간을 갖게 되는가?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프리먼 형제는 말한다. 그러면 그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대체로 나 자신의 필요 사항이 아닌 것에 손길을 내미는 문제입니다. 때때로 나는 구세주께서 흠길을 걸어 다니시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그를 섬기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신다. (모사이사야 2:17 참조) 프리먼 형제가 들른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지역 봉사 기관을 운영하는 로웰 베니온 형제는 성도들은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동기 부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나민 왕 역시 이웃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심한 사람들의 큰 책임이라고 가르쳤다. 방금 개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사야아 4:26)

우리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 사항이—교회의 회원 자격이 아니라—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정의해 주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고민하기 보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것을 요구하신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몇몇 말일성도의 이야기를 여기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아렘에 있는 성도들 폴랜드를 돕다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경계선을 뛰어 넘을 것을 요구한다. 폴랜드는 비교적 안락한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수백 마일 떨어진 폴랜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거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헤이그 네덜란드 스테이크의 하아렘 와드의 커쉬바움 형제 자매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고통을 더는 데 거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커쉬바움 부부는 폴랜드를 원조하는 폴랜드라는 재단을 조직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 재단은 종교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열아홉 개의 서로 다른 종파의 회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은 가족과 교회 회원의 유대를 넘어서, 이웃이 이웃을 돕는 방법으로 가장 훌륭하게 해결될 수 있다.

커쉬바움 자매(우측으로부터 네번째)가 원조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을 돕고 있다.

하아렘 와드의 회원들은 서로 종교 그룹 회원들과 함께 음식물과 의복과 구두와 담요, 비타민제, 비누 및 기타 의약품을 수집하는 일을 했다. 비닐 봉투와 필요한 원조 물품 목록을 손에 든 채, 자원 봉사자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수집했다. 기부금은 쌀 값으로 기름, 버터, 유아용 식품 및 비타민제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병원에서는 값비싼 의료용품을 제공했다. 두 명의 운전 기사와 더불어 트럭과 소형 버스를 각기 한 대씩 사용할 수 있었다. “참으로 기적적으로 각 방면에서 도움이 주어졌습니다.” 하고 커쉬바움 자매는 말한다.

자원 봉사자들은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짐을 꾸렸다. 종교 의식을 가진 다음, 83,000불 분의 화물이 선적되었다. 원조품은 감리교와 침례교와 양로원과 고아원과 아동 병원으로 보내졌다.

커쉬바움 자매는 함께 도움의 손길을 뻗는 중에 하아렘에 있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간에 우정이 싹트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보통 때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 놓던 장벽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수송 차량이 안전하게 돌아온 후에 가진 종교 의식에서 어느 침례교 목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오”(에베소서 2:14)라는 신약의 성구를 인용했다.

하나로 뭉친 음성에서 나오는 힘

영적인 필요 사항은 물질적인 필요 사항만큼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위급한 것이다. 음란 서적과 반 종교적인 개념은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재난인 것이다.



흔히 부모와 다른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인 가치의 부식을 막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알보그의 게르다 젠센 자매는 하나의 확실한 음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알보그에서 최근에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다룬 내용을 학교 교재로 승인받기 위해 상정한 일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젠센 자매는 학교에서 새로운 교재의 결정권을 갖는 부모 평의회 회원이었다. 젠센 자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책을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말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젠센 자매가 회상하는 말이다. 학교의 교장과 선생님들은 모두 그 책의 사용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젠센 자매의 말이 끝나고 나자, 학부모들은 그녀와 뜻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그것을 부결하기로 했다.

젠센 자매의 영향력이 평의회에서 늘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선출된 후 처음으로 참석한 평의회



게르다 젠센 자매와 알보그 학교 어린이들

모임에서 한 회원이 일어나서,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종교를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나 젠센 자매의 긍정적인 가치관은 점차 그 그룹 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존중되었다. 그녀는 학교 잡지를 발간하고 학교 오락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 졸업식에서도 말씀 순서를 맡았다. “나는 전적으로 교회의 교재와 말씀에 들어 있는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녀가 회상하는 말이다. “그 후로 나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시다.” 그녀는 그 후 삼 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래,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를 거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젠센 자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교재가 승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음성을 높임으로써, 그녀는 알보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한 것이다.

사랑의 노래

세투발 폴투갈 지방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테리사 핀토 자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모사이야 2:17; 마태복음 25:44~45 참조) 그녀는 봉사의 기회를 찾기 시작했으며, 그 마을에서 외롭게 살면서, 거의 웃는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특히 양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알마다 퍼스트, 코스타 다 카파리카, 및 세투발 지부의 회원들은 그녀의 계획에 모두들 기뻐했다. 여러 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 세 지부의 젊은 사람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함께 모여서 민속 무용과 노래, 찬구 및 시 낭독을 연습했다.

그 그룹은 그 지방의 요양원에 있는



오십 명의 노인들을 위해 처음 공연을 가졌다. 그 그룹은 열심히 공연하여 복음을 생활화하는 기쁨을 나타내고자 했다. 공연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자, 청중석에 앉은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나는 오늘 저녁을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 젊은이는 말했다.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기쁨은 세투발 지방부 전체에 퍼져 나갔다. 두번째 사업이 이미 착수되었으니 여러 다른 지부가 합세하여 고아원을 위한 쇼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이웃을 이해함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교회가 부정적인 “종파”, 이단적인 종교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식됨으로 선교사들과 교회의 회원들이 다같이 곤경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실상, 말일성도를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서유럽의 공보 책임자인 알란 마리 형제는 말한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됨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합니다.” 말일성도가 그들의 지역 사회 내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상호 이해의 필요성은 교회 회원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제라드 지로 카리에 형제에게 있어서,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브르셀과 니스와 빠리 지역의 지역 대표인 지로 카리에 형제는 이미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도 사 년 전에, 그는 프랑스의 라그니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경험은 그의 비회원 이웃들을 좀더 고맙게 여기도록 해주었다. “그것은 내게 다른 사람들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지로 카리에 형제는 그의 종교 문제를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는다. “시의회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말일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복음의 원리가 공공

사업과 학교의 대의원을 포함하여 그가 하는 사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평의회 모임에 가기 전에 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그는 설명한다. “열띤 토론에서 내가 중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좌중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하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대개는 그들은 진정을 하고, 간혹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라도, 그 토론은 다른 문제로 넘어 가곤 합니다.”

시의원으로 일하는 것은 무보수 직책이지만, 지로 카리에 형제는 자신의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데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도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로 인해 나는 그들이 비록 나와 같은 의견이 아니거나, 나를 당황하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더 고맙게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함

한 청년이 썰매에서 눈더미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친구들이 도와 주려고 달려 왔다. 눈에 범벅이 된 팔과 다리를 털어 내면서 그는 웃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눈을 좋아해!” 그는 아이다호주의 렉스버그에서 눈 자동차 타기, 크로스 컨트리 스키, 승마, 얼음 낚시, 스쿠버 다이빙 및 수상 스키 등의 야외 활동을 열성적으로 즐기는



젊은이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그룹이 아니다. 대부분의 그 회원들은 정도가 심한 신체 장애—척추 이상, 뇌성 소아마비, 병어리 및 장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티브 앤더슨 형제에 의하여 1984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인 렉스 야외 협동 장애자 협회에 속해 있다.

스티브는 신체 장애자의 당면 문제를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스티브 자신이 뇌성 소아마비의 희생자이다. 석사 학위를 받고 난 후에도, 그는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 줄 고용주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에 있는 교회 소유의 렉스 대학에서 전에 가르쳐 주신 교수 두 분을 만나 보았다. 그들은 그가 렉스 대학의 신체 장애 학생들과 아이다호에 있는 어퍼 스네이크 리버 밸리의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에 동의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램프를 이용하여 불링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다리를 조금 쓰는 사람들은 “앉아 타는 스키” 썰매로 스키를 탈 수 있다. “장애자들도 오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억누르지 못합니다.”라고 스티브는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참여하기를 꺼리게 되는



고정 관념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릭스 대학 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장애자들을 대동하고 야영 여행, 배타기, 스키 여행을 하는 것을 도와 준다. “신체가 건전한 사람과 장애자들이 봉사하는 것을 주고 받으며, 영과 영의 만남을 경험합니다.”라고 스티브는 말한다.

스티브는 너무 약해서 날지 못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위대한 새에 관한 호피 인디안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시간이 흐르자, 그 새는 힘을 길러, 어느 날 날기 시작했다. 새는 바윗돌이라도 기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날랐다.

스티브는 그와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쳐 날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고 스티브는 말한다. “그 약속에 우리는 희망을 걸고 있어요.”

도와 주고자 하는 자극

안트워프 벨지움 지방부의 마리아 윌럼스 자매는 어느 날 노인 돕기 과정에 대한 글을 읽었다. 그녀는 여러 해 전에 교회에 들어와 상호부조회 공과에서 가르치는 자선 봉사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여러 번이나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축복사의 축복도 역시 이러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 자극을 받아 그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이웃의 노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녀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집을 깨끗이 치워 주고, 때로는 요리도 해주며, 시장을 함께 보기도 한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의 주목적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같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경험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려 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노인들과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고 윌럼스



자매는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에는 마음 아픔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보살펴 오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언제나 텅빈 자리가 남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작별하기가 참으로 힘들게 됩니다.”

최근에 유아반 교재를 공부하다가, 윌럼스 자매는 몇 가지 예로 제시한 수화를 알게 되었다. 수화로 처음 배운 표현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수화를 배우게 되면 이웃에 사는, 잘 듣지 못하는 한 여인과 그 남동생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화반 과정을 이수하면서, 그녀는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윌럼스 자매는 자신이 주변에서 봉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 준 교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왜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985년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기금 모금에 참여한 것과 같이, 교회에서는 때때로 세계의 문제에 직접 참여한다. 그러나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체로, 교회에서는 인적 자원을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 사명은 세 가지로 정의되었다. 1) 복음을 가르치고, 2) 죽은 자를 구원하고, 3)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성전을 짓고, 증가되는 새로운 회원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에서는 우리 지역 사회 내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책임을 회원인 우리들에게 맡겼다. “우리는 다른 일에 매달리는 것은...교회를 기본적인 사명으로부터 돌려 놓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말씀하셨다. (지역 대표에게 행한 말씀 중에서, 1978년 3월 31일)

이러한 철학에 담겨 있는 지혜는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도움이 손길이 필요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자선 단체나 사회 단체에서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가 당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이웃이 배울 수 있는 것이다—같은 길을 걸어 가던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고자 한 외로운 사마리아인이었다.

(누가복음 10:30~36)

비유의 교훈이 그의 제자들에게 대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힌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고 말씀하였다.

우리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은 가족과 교회 회원의 유대를 넘어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훌륭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 주위를 살펴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 도와 주고자 할 때, 곧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

도움을 베푸는 데 있어서의 지침

1968년 9월에 대관장단에서는 교회 회원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것을 권고하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말씀은 지역 봉사 사업을 주제로 한 고전적인 말씀이 되었다.

“교회의 책임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해 감에 따라 교회가 회원들이 살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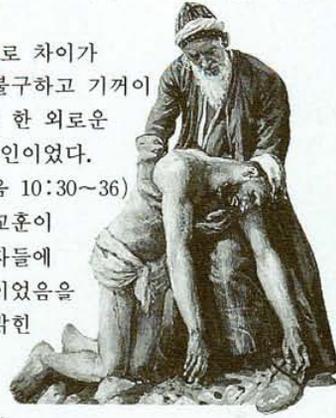
많은 도시와 지역 사회의 누적되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일일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회원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원들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도시와 지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 인류를 위한 폭 넓은 사명을 지닌 우리로서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환경에서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해결을 요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회원들은 교회의 표준과 일치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헌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교회 회원 개개인이 교회를 대표하거나 떠 맡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을 항상 지침으로 삼아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개척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허버 시 킴볼은 오래 전에 이렇게 말했다.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업의 진실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남에게서 빌린 빛으로는 건디어 낼 수 없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울슨 에프 휘트니, 허버 시 킴볼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45년, 450페이지)

과학도로서 유타 대학에 등록했을 때 나는 십대 말기의 나의 간증을 평가해 보기 시작했다. 나는 다만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옳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만 그 이유로 복음을 믿기는 원하지 않았다. 나는 나 스스로 알기를 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빛이 필요했다. 나는 복음에 도전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나 스스로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나는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했으며,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 자신의 간증을 얻기 위해 애쓰며, 또한 과학 연구에 불타는 과학도로서, 나는 과학과 종교가 얼마나 무리없이 함께 어울리는가를 발견하고는 참으로 기쁨에 넘쳤다. 그 양자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깨달은 바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종교적인 진리와 “과학적인 방법”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란 실체적이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룬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자로 잰 수 있고, 암페어로 읽을 수 있으며, 또는 전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들 비평가들은 종교는 우리가 만지거나 측정할 수 없는 신앙과 계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적다고 한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실제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과이 중간자와 핵입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논문을 썼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

돈 린드

나 자신의 간증을 얻기 위해 애쓰며, 또한 과학 연구에 불타는 과학도로서, 나는 과학과 종교가 얼마나 무리없이 함께 어울리는가를 발견하고는 참으로 기쁨에 넘쳤다.



그것을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논문을 써 냈다.

우리는 자기 유도 계수와 자장선 또는 도체의 용량에 대하여 배운다. 우리 주위에 자기 유도 계수나 자장이나 또는 도체의 용량에 대한 것을 보거나 느껴 본 사람이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 영향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과학자들도 때로는 실체하지 않는 것을 다루고 있으나, 그들은 이러한 것을 지적인 면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행한다.

진리를 발견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활용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또한 복음을 배우는 데에도 적용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해 주신다. 십일조에 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그것이 바로 실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험해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간증했다.

엘마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여”(엘마서 32:27) 그런 다음 그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물을 주고 양분을 대어 준다면, 그 메시지가 좋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리라고 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예를 제시해 주셨다. 그는 우리가 그의 교리가 참되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학적인 방법과 같은 것이다.

과학과 신앙

과학은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 아니다. 십칠 세기에, 이태리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발명하여 그 이전에 사람이 하늘을 보았던 것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 그는 달이 그 스스로 빛을 발하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관측했다. 오히려 달에는 산과 계곡이 있었으며, 그 빛은 반사되어 발하는 것이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러한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오랜 기간 동안 심판을

받고 그의 신조로 인해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가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신념을 가진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확신과 상당히 흡사한 것이다.

그림 맞추기 조각

물론, 과학과 종교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는 점도 간혹 있다. 창세기, 모세서, 아브라함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목적에서 인간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한 지침서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그는 우리들에게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과학은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해 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으며, 무엇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아무런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이루실 것이며, 이러한 것은 주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보는 눈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수없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수천 개의 조그만, 비슷해 보이는 그림 조각을 맞추는 커다란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고는 했는데, 어떤 것은 다 완성하는 데 일주일이나 걸릴 때도 있었다. 각기 한 장소에만 들어 맞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제 자리에 옮겨 맞추어 놓음으로써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맡은 부분을 모두 찾아낼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의 부분을 나타내시기에 적당한 때임을 아실 것이며, 과학자들이 알아낸 그림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림은 똑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조그만 조각에 걱정하지 말고 그 결과를 마음 속에 그려 봄으로써 전체의 그림을 맞추어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님은 각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그의 계획에 어떻게 들어 맞는가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 그림 맞추기의 복잡하고도 중요한 부분인 우리 자신을 적당한 위치에 내어 맡김으로써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캐드린 문 린드, 물론론의 우주인, 돈 린드(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5년), 15~26페이지. 허가를 받아 사용함.

아론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 는 아론 신권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년은 열두 살이 되면 아론 신권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장해 가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이 권능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전기 소켓에 손가락을 대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도 여러분은 확실히 무엇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정밀 기계를 다루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전기가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의 힘이 일으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측정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전기를 이용해서 빛과 열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재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신권의 능력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능력이 초래하는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신권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교회에 들어온 뒤에 선교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교사에 불과했다. 교사의 직분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앎을 해 해서 감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나의 일지 중에서, 솔트레이크시티 : 청소년 인스트럭터 오피스, 1882년, 8페이지)

그는 자기의 소망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사로 성임되었으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아칸소로 갔습니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악어가 우글거리는 늪지를 진흙 투성이가 된 채 지친 몸으로 16킬로미터 가량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드럽 형제는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그를 통나무 위에 얹혀 놓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드럽 형제는 진흙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처나 나는 그는 혼자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삼 일 후에 그는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몸으로 진흙 투성이가 된 채, 테네시주 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었지만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여인숙으로 가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라는 것을 안 여관집 주인은 웃으면서 그를 쫓아내려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우드럽 형제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설교를 해준다면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멤피스의 부유한 상류층들이 많이 몰려들어 진흙을 뒤집어 쓰다시피 한 이 선교사를 보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무도 찬송과 기도를 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우드럽 형제가 혼자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과연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드럽 형제는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를 조롱하고자 몰려든 사람들이 비밀로 했던 행위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마쳤을 때, 아론 신권을 소유한 이 초라한 손님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의 일지 중에서, 16~18페이지 참조)

그는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권능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아론 신권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 자신에게 대대로 수여되는 것이므로 아론 신권이라 하느니라.”(교성 107 : 13)

아론 신권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 이름들을 들어 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론 신권은 때로는 소신권으로 불립니다. “소신권이라 칭하는 이유는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연고니, 외형적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있느니라.”(교성 107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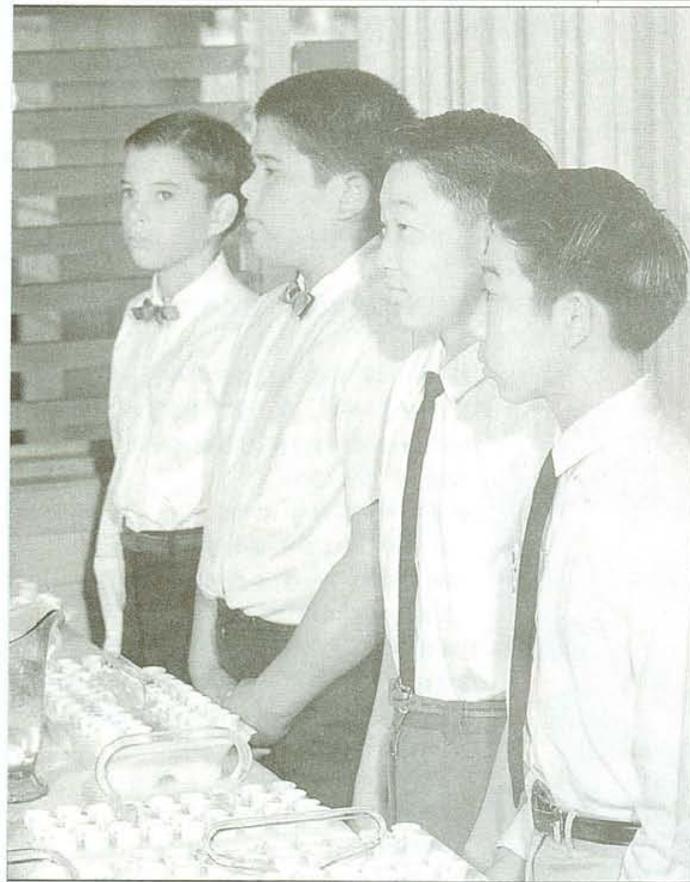
이 말은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이 항상 아론 신권, 즉 소신권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아론 신권의 대제사, 즉 관리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멜기세덱 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을 관리했습니다.

소신권이라 불림으로 해서 아론 신권의 중요성이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대신권에 속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84 : 29 참조) 대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아론 신권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성찬을 돌렸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예로움과 겸허해짐을 느꼈으므로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으로도 지칭됩니다. 이것 또한 타당한 명칭입니다. 아론 신권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대신권을 갖도록 하거나 선교 사업 또는 성전 결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론 신권 제사인 침례 요한이 고대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회복시켜 대신권을 받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 11 : 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맹기세택 신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와 지도자들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나, 칠십인, 대체사, 축복사가 되고, 또한 선교사, 정원회 지도자, 감독단, 스테이크 지도자와 가족의 가장으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와 교사와 제사인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언젠가는 사도와 예언자가 되고 교회를 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론 신권을 예비 신권이라 부르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권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이들을 모두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성임받을 때 그 의식을 수행하고 아론 신권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전반적인 권능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권의 직분입니다. 직분마다 각기 다른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세 개의 직분, 즉 집사, 교사,

제사는 여러분이 십대일 때 받게 됩니다. 네번째 직분인, 감독의 직분은 여러분이 성숙하여 대체사로서 합당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집사는 상임 역원으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교성 84 : 111 ; 20 : 57~59 참조) 정원회는 12명의 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교성 107 : 86 참조)

교사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교성 20 : 53)해야 합니다. 교사 정원회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교성 107 : 86 참조)

제사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교성 20 : 46~47)합니다. 제사 정원회 수는 48명입니다. 감독은 제사 정원회 회장이 됩니다.(교성 107 : 87~88 참조)

여러분은 항상 이러한 직분의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더 높은 직분을 받게 될 때라도 여러분은 처음에 받은 권능은 계속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사가 될 때는, 집사나 교사로서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권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권을 받게 될 때라도 소신권의 모든 권능을 그대로 지니고 그 직분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14년간 관리 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고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는 “나는(어른이지만 여전히) 집사일 뿐이요.”라고 자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임할 때 엄격한 형태의 성임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임문에는 신권을 부여한다는 것, 직분을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준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직분은 신권의 일부이지만, 신권은 그 안에 포함된 어떠한 직분보다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법하여 스스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한 신권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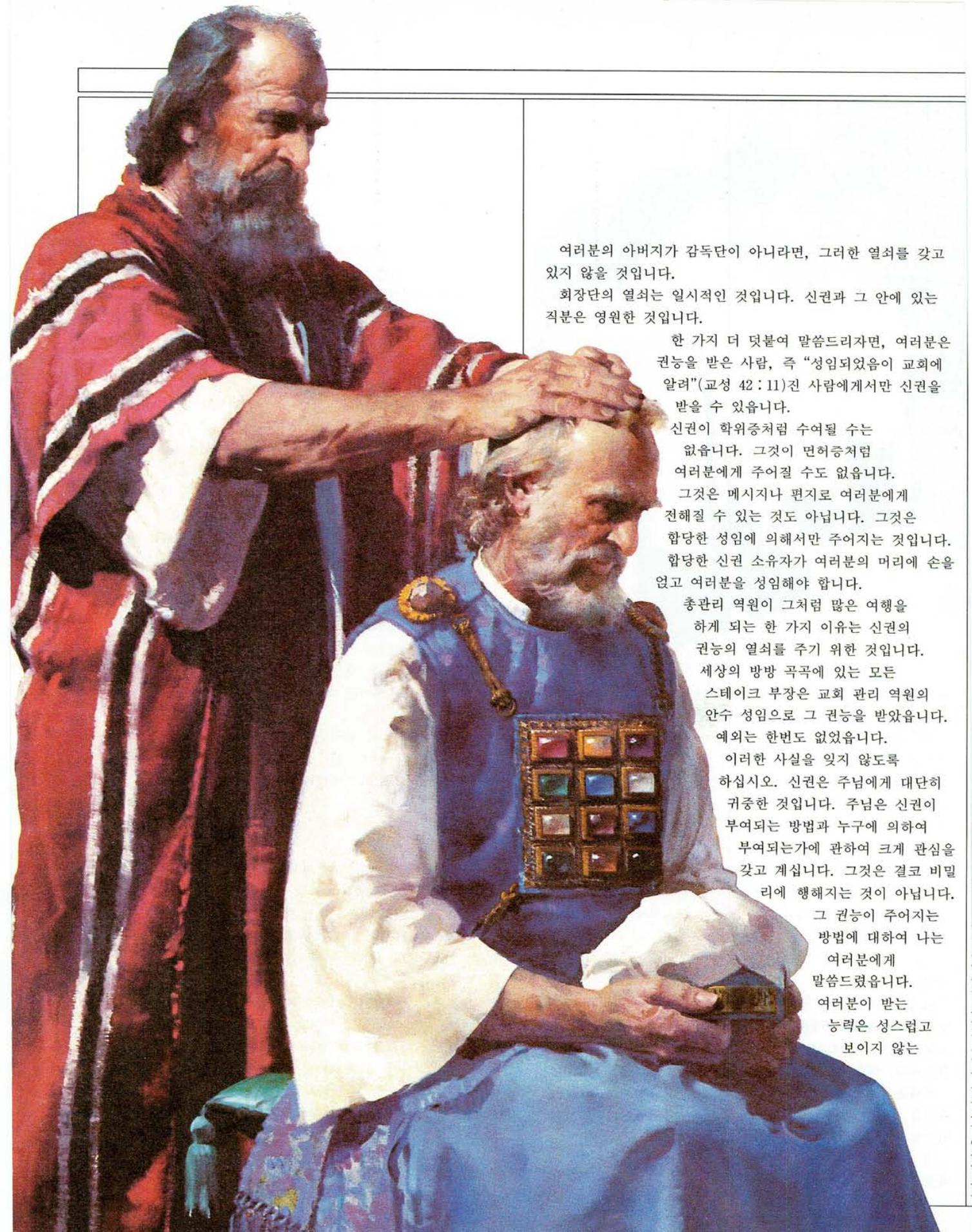
활동적이고 믿음이 있다면 신권의 능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면 한 가지 또 다른 권능을 갖게 되며 정원회 회장으로서의 권능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성임에 의해 신권과 신권에 내재하는 직분(집사, 교사, 제사)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장에 성별됨으로써 회장으로서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될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성임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합당한 신권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성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감독단이 여러분을 성별할 것입니다. 회장단의 열쇠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감독단이 아니라면, 그러한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단의 열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신권과 그 안에 있는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은 사람, 즉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교성 42 : 11)진 사람에게서만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이 학위증처럼 수여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면허증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나 편지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합당한 성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성임해야 합니다.

총관리 역원이 그처럼 많은 여행을

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신권의

권능의 열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방 곡곡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 부장은 교회 관리 역원의

안수 성임으로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외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권은 주님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신권이

부여되는 방법과 누구에 의하여

부여되는가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비밀

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이 주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능력은 성스럽고

보이지 않는

은사인 신권의 권능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능은 성임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은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서 한 아이가 순종심을 배우게 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집사 연령쯤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와이오밍에 있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말을 훈련시키고 싶어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는 산속을 거칠게 달리던 말이었습니다.

말들을 모아서 목장으로 데리고 가서 내 아들의 말에게 고삐와 줄을 매는 데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이 진정할 때까지 말을 매어 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말과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만져 보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로 말을 풀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는 밥을 급히 먹어 치우고는 자기의 말을 보려고 달려 나갔습니다. 나는 곧 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말이 그에게서 멀리 가버리려 하자 그는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팔목에 줄을 감았던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뛰어나가자, 말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줄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는 달리는 말과 보조를 맞추려고 애쓰느라고 보폭을 크게 내딛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넘어졌습니다. 만일 그 말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목장 문 밖 들판으로 끌려가 분명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말이 왼쪽으로 돌아 잠시 속도를 늦추어 내가 그 줄을 울타리 말뚝에 매고 아들을 구해낼 여유가 생길 만큼 잠시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얘야, 네가 말을 다루려면, 힘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말은 너보다 더 크고 힘도 더 세단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앞으로든 변함이 없을테니까 말이다. 네가 말이 순종하도록 훈련시킨다면 그때는 말을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은 네가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번의 여름을 보낸 다음에 우리는 다시 그 목장으로 가 그의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겨우 내 길들이지 않은 말들과 함께 떼지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저 아래 강가에 있는 풀밭에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언덕으로부터 풀밭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말들은 불안한 듯이 달아났습니다. 그때 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말은 멈칫하더니 무리에게서 빠져 나와 아들에게 총총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내 아들은 순종심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물에 내재하는 위대한 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말을 훈련시키는 힘을 얻은 것과 같이, 신권에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스스로를 다스리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신권 정원회에 속하게 될 것이며, 여러 형제님들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론 신권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이 벨기세택 신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분의 명칭이 다르고, 더 많은 권능이 주어지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권의 능력은 집회 참석이나 임무 지명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읽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등의 일상적인 일을 여러분이 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제사로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복음을 전도했으며...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크신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든, 장로든, 칠십인이든, 사도든 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면 반드시 도와 주십니다.”(밀레니얼 스타, 1905년 9월 28일, 610페이지)

침례 요한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아론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라.”(교성 13편)

집사, 교사, 제사인 여러분은 성스러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성역을 베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권의 권능이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를 이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신권의 능력은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참되며, 신권의 권능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큰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

1981년 10월 연차대회 신권회에서 행한 말씀

